

EXHIBITION
LOUIS VUITTON
SEOUL
DDP

**VOLEZ
VOGUEZ
VOYAGEZ**

비행하라, 향해하라, 여행하라

2017년 6월 8일 - 8월 27일

무료 전시

10:30am - 6:30pm
금요일/토요일/공휴일 9:00pm까지 연장 운영

온라인 사전 예약:
louisvuitton.com
#SEOULVVV



모바일 앱 LV SEOUL VVV

Style

조선일보

JUNE 2017
vol.158



Panthère
de
Cartier

GUCCI





BURBERRY

The DK88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36 19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카르띠에를 대표하는 팬더드 카르띠에 워치 18K 옐로 골드 미디엄 모델이다. 1983년 첫선을 보인 팬더드 카르띠에 워치는 한 장의 주얼리이자 카르띠에의 아이콘 워치로서 20세기 후반에 가장 높은 인가를 누린 상징적인 타 임피스다. 문의 1566-7277



21

48



- 16 **CLASSIC RETURNED**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 중 하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설적인 위치의 회귀다.
- 18 **MATCH POINT** 양말의 패턴이나 컬러만 잘 선택해도 매력 신어오던 클래식한 슈즈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 19 **MASTERY OF AN ART** 교토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와 일본의 전통 공예 작품.
- 20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장품도 바꾸어야 한다.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제안하는 서머 뷰티 셀렉션.
- 21 **TIME TO SHINE** LA의 뜨거운 태양, 로맨틱 홀리데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리조트 룩.
- 30 **THE ART OF THE WILD** 티파니는 탄생 1백90주년을 맞아 야생의 경이로움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야생의 예술: 아트 오브 더 와일드 (The Art of the Wild)'를 주제로 삼았다.
- 32 **LEGENDARY FEMININE**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의 까르띠에 팬데(Panthere)가 돌아왔다.
- 33 **INNOVATIVE EXPERIENCE** 기계식 워치 시장의 새 지평을 연 시계 브랜드 리처드 밀의 창당동에 위치한 새로운 부티크.

SPECIAL ART + CULTURE

- 36 **중동의 아트 마켓, 블루 오션의 가능성을 정조준하다** 여러모로 성장 추이가 돋보이는 중동 미술 시장, 과연 세계 미술계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블루 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 38 **CREATIVE FORCE** '이람의 문으로 불리는 두바이'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교류가 이뤄지는 '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있다. 일세르 칼 에버뉴(Alserskal Avenue)가 그곳이다.
- 40 **지하철은 없어도 미술관은 있는 나라, 카타르** 지하철 같은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카타르에서 유명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청해 미술관을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 41 **내면의 열정을 끌어내는 황금빛 미술** 3년 연속 '아트 두바이' 원판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은 채은미 작가를 작업실에서 만났다.
- 42 **BEAUTIFUL RESISTANCE** 아랍 아트 신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 추상화가로 단단히 뿌리를 내린 사미야 할라비(Samia Halaby)와의 만남.
- 45 **또 다른 모더니티를 주목하다** 중동의 모더니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 전시.
- 46 **A MONUMENTAL EXHIBITION IN SEOUL** 카르띠에 현대미술 재단이 서울시립미술관과 손잡고 펼치는 (하이라이트(Highlights))전.
- 48 **MASTERS OF ARTISTIC COLLABORATION** '캘리그래피'의 달인으로 불리고 있는 루이 비통이 제프 쿤스와 손잡았다.
- 50 **방랑고 없던 시절의 지혜를 찾아서** 디자이너 류지현은 우리에게 '낭랑고 없는 부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 51 **REMEMBER THE EXHIBITION** 최근 돌아온 초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현대미술의 향연을 기억하라.

THE ULTIMATE ELEGANCE



altiplano.piaget.com
+82 (0)2 3213 2270

PIAGET

Style 조선일보

Issue.158 June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경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원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포토그래피 박진준

Jewel CHAIN ATTRACTION

강렬하고 대범한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개성 넘치는 체인 주얼리 컬렉션.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태슬 스카프를 손목에 걸은 듯 유연한 형태감이 특징인 데릴라 브레이슬릿 2천원(원래 부세몬, 벨의 비늘을 육각형 체인으로 재해석한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5천원(원래 불가림, 불 & 체인 형태의 불드래이더블 링크 이어링 5백90원(원래, 대담한 체인 링크와 볼 밸런스가 포인트인 티파니 하드웨어 랩 브레이슬릿, 네크리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9백90원(원래, 모두 티파니, 체인을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끈 구조적인 디자인이 유니크한 미용 인피니드 카르파에 링 1천5백원(원래, 마이 용인피니드 카르파에 브레이슬릿 1천5백원(원래 모두 7백50원, 에디터 권유진

Hot spot

쇼핑몰 속 휴식처 '열린 도서관', 스타필드 코엑스몰 한복판에 들어서다



내리막길을 걷던 중이 책들이 술술 붙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독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체험과 가벼운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생겨 주목된다. 서울 강남의 복합 공간인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2,800㎡ 면적에 걸쳐 2개 층으로 구성된 '열린 도서관(가칭)'이 들어선 것이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오픈 라이브러리는 13m 높이의 대형 서가 3개를 중심으로 라운지형, 테이블형 등 여러 종류의 책상과 의자가 배치돼 있으며 전 장르에 걸쳐 5만 권이 넘는 책과 4백여 종의 최신 잡지, 그리고 아이패드를 활용해 독서할 수 있는 최신 e북 시스템까지 갖추었다. 책 읽는 공간의 경우, 서재처럼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은은한 간접조명을 도입했으며, 독서 관련 모임을 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오픈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책들은 유명 인사들의 도서, 일반 시민들의 도서 기부를 통해서도 조달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살릴 계획이다. 또 콘서트, 시 낭송회, 인문학 토크쇼, 책 관련 전시회 등을 이곳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코엑스몰의 중심부인 센트럴 플라자에 자리한 이 열린 도서관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몰이던 코엑스몰의 재도약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새롭게 선보인 이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왔는데, 문화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열린 도서관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열린 도서관 콘셉트로 2013년 리뉴얼을 단행한 이래 연간 1백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발달중인 다케오 사립 도서관과 2012년 옛 서울시 청사에 문을 연 서울도서관처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허브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지 기대된다. 에디터 고성연

INSIGHT

편집부가 개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색'을 읽다. What Color is You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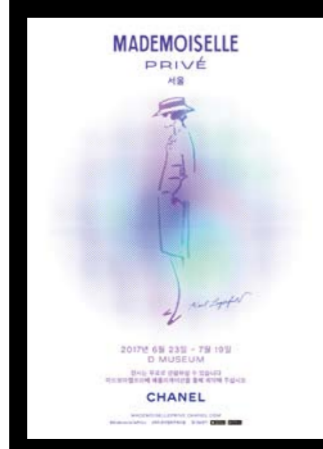


반인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점 압구정 본점, 판교점 등으로 확장하면서 수년간 팬층을 형성해온 일본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몽상클레르의 최근 행보가 흥미롭다. 지난 4월 중순 디저트 브랜드로는 'What Color is Your Life?'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시즌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소트 케이크 3종과 테오도로 티 3종을 묶은 앙상블 컬래보레이션을 선보인 몽상클레르, 첫 번째 시즌 색상으로 '화이트'를 택하고 최근 기존의 이태원점을 '화이트 하우스'라는 콘셉트로 단장해 새롭게 오픈했다. 정직하고 순수한 본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몽상클레르의 남프랑스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작은 언덕의 이름인데, 일본의 디저트 상자로 추앙받는 도쿄 자우가오카에 자리 잡은 프랑스퐁 과자점이다. 전체 파티시에로 불리는 츠지구치 히로노부를 내세워 육각형 케이크 '세라비'를 비롯해 몽상클레르 언덕을 형상화한 '몽상클레르', 눈 덮인 알프스 산 모양을 본뜬 '몽블랑' 등 다채로운 수준급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다. 츠지구치는 시즌 컬렉션 발표 행사를 위해 내한하기도 했다. 몽상클레르의 앞으로 컬러 스토어 맵(Color Store Map) 프로젝트를 기획해 전 매장을 컬러로 실망하고 그 위치를 지도로 만들 예정이라는데, 과연 팔레트에서 어떤 색상을 선택해 영감 넘치게 펼쳐낼지 궁금해진다. 에디터 고성연

Beauty AGAINST THE SUN

여름철 가장 신경 쓰이는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자외선 차단과 수분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을 소개한다.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가 부담스럽거나, 바르고 간편한 원스텝 제품을 찾는 이들이라면 주목할 것.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낮의 피부 리듬을 활성화하고, 자외선 차단은 물론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부드럽고 탄력 있는 광채 피부를 선사할 '말레드르 노예 에센스'를 '프리미엄 프라이빗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로 소개한다. 이 제품은 낮 전용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로 낮 동안 마주하는 자외선과 건조함, 산화 작용 등 외부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도록 고안됐으며(125ml 16만원). 그런가 하면, 자외선뿐만 아니라 최근 뷰티업계 최대 이슈인 미세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인티 폴루션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시슬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피부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워터-블랑 브이비닝 데일리 디펜스 플루이드 SPF 50-PA++++'를 선보였다. 자외선과 환경오염, 프리라디칼 등 도시의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고르지 않은 피부 톤과 디크 스킨의 원인이 되는데, 이 제품은 완벽한 인티 디크 스킨 데일리 스킨케어로 도시 환경에서 최적의 보호 작용을 한다(50ml 33만원). 이뿐만 아니라, 실화수에서는 자외선과 미세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 플루이드 마백 크림인 '삼백크림'을 소개한다. 이는 업그레드된 플렉 브라이트닝 기술로 더욱 강력한 자외선과 미세 먼지 차단 효과를 선사하고, 톤업 기능까지 발휘하는 멀티 케어 제품(40ml 7만5천원). 항산화 성분인 잔틴적인 피부 노화를 케어하는 '리모네인 에센스'는 데일리 SPF 30도 눈여겨볼 만하다. 리모네인의 독보적인 배무라 콜라겐스가 에-치를 공급하는 영양분을 통해 피부 본연의 회복 과정을 활성화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어 UVA와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50ml 29만6천원). 시세이도는 단 한 번의 터치로 화이트닝과 피부 보습, 자외선 차단, 피부 톤 개선뿐 아니라 메이크업 베이스 효과까지 갖춘 모이스처라이저 '화이트 루틴'을 '데일리 N SPF 50-PA++++'를 선보였다. 개성과 여행 기를력을 결합한 세컨드 스킨 마스크 '효과의 낮 충전'은 하이브리드 모이스처라이저로, 타임 릴리즈 화이트닝 효과를 통해 하루 종일 빛나는 피부 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50ml 7만5천원). 에디터 이진연



Exhibition MADMOISELLE PRIVÉ SEOUL

지난 2015년 런던에서 열린 사설의 (마드모아젤 프라이베)Mademoiselle Privé) 전시가 디더 서 울에 상륙한다.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 대규모 전시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디뮤지엄(D MUSEUM,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29길 5-6)에서 선보이는 것. 이번 전시는 사설이 창조한 세계에 영감을 주는 원작을 둘러보는 흥미로운 여정으로, 런던에 이어 서울에서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다. 런던에서 개최한 기존 전시 구성에 서울을 위한 새로운 콘셉트를 더했는데, 칼 라펠트의 재창조한 오트 쿠튀르, 사설 N5 향수, 1932년 기브라멜 사설이 순수 디자인인 유일무이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비주 드 디아망(Bijoux de Diamants)'의 리에디션(re-edition) 작품 등, 마드모아젤 사설의 대표적인 창작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마드모아젤 프라이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브라멜 사설과 칼 라펠트의 크리스마스 넘치는 개성과 자유로운 방향 정신을 포착한 이번 서울 전시에서는 디지털 역동성과 한국적인 감성이 깃든 새로운 비전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www.mademoiselleprivé.chanel.com 에디터 배미진

RICHARD MILLE

A RACING MACHINE ON THE WRIST



CALIBER RM 11-03

리차드 밀이 청담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RICHARD MILLE BOUTIQUE
429 Apgujeong-ro Gangnam-gu, Seoul, Korea +82 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바캉스 룩에 활기를 더해줄 비즈 네크리스 60만원대 다들.



시원한 느낌을 자아내는 블루 미러 렌즈 선글라스 30만원대 레이벤 by 록스타가 코리아.

for him Selection

화려한 패턴의 하와이안 셔츠에 액세서리만 더해도 충분히 쿨한 서머 스타일이 완성된다. 여기, 남성을 위한 서머 스타일링 가이드를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블루 컬러 그래픽(선)으로 포인트를 준 리피아 햇 35만원 헬렌카민스키.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하와이안 패턴 셔츠 80만원대 발렌티노 by 분다삼.



우주선 모티프가 돋보이는 메시 테크닉, 32x45cm, 2way 35만원 구찌.



빛샘하게 피서 스킨 위에 착용 시 착용감이 부드럽고 강성의 필라 각 20만원대 루이비통.



상큼한 옐로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샌들 60만원대 마르니 by 분다삼.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밴드 아이즈 커프스 링크 40만원대 펜디.



산책 또는 가벼운 액티비티를 할 때 유용한 블루투스 헤드셋 E45BT 14만9천원 JBL.



스포티한 무드를 선사하는 스포츠 샌들 8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신선한 컬러감각과 패턴이 돋보이는 리피아 지 199,900원 S.T. 유트.



시계 모양 브레이슬릿 28만원 헬렌카민스키 by 10 포르소 코모.



벨크로 디테일의 원형 슈즈 85만원 웨버 홀델 페더 by 10 포르소 코모.



선인장 모티프 등 앙증맞은 패턴이 돋보이는 반소매 셔츠 72만원 프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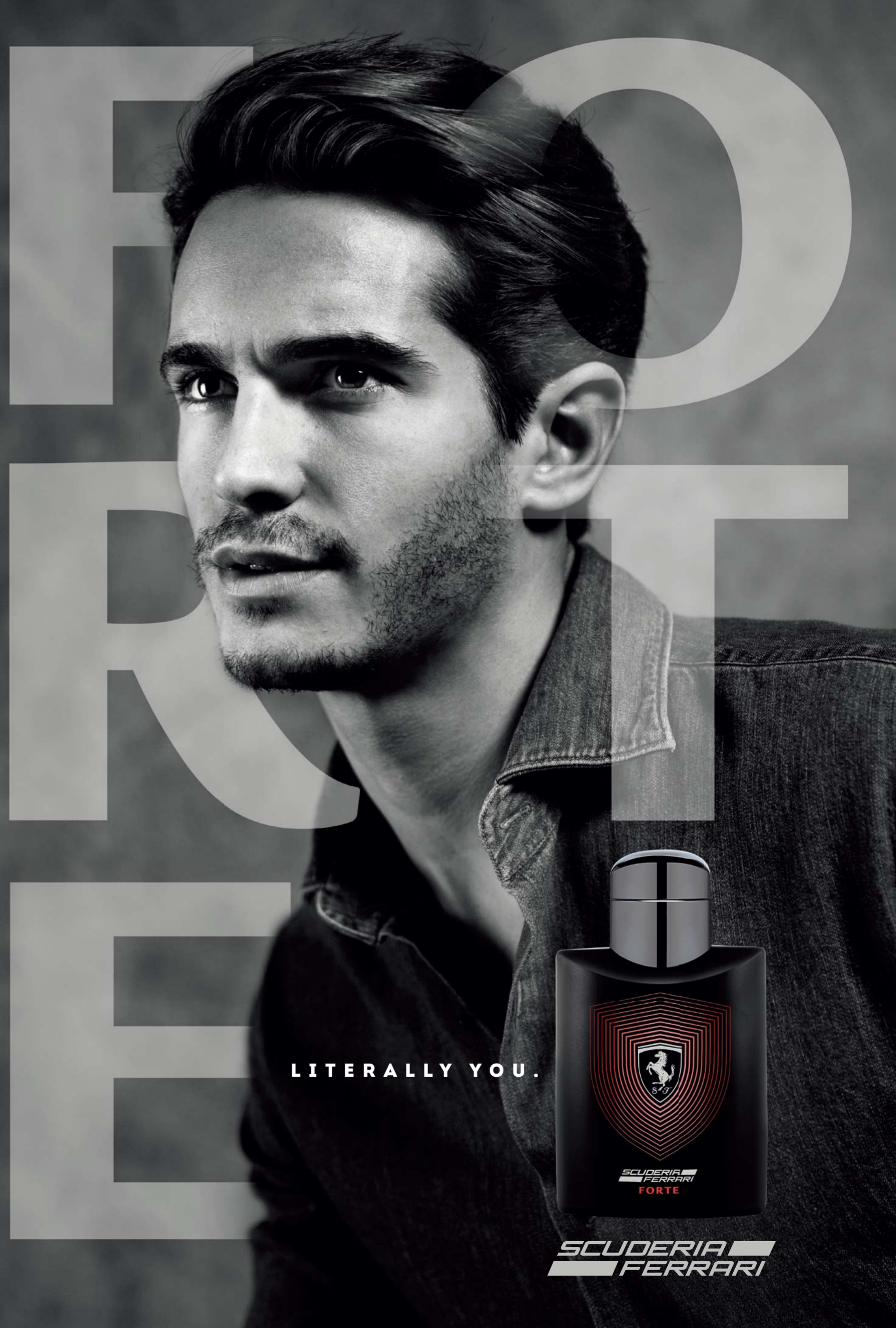


타자기 프린팅이 인상적인 플라자, 30x22cm, 29만원 구찌.

- 다들 02-3480-0104
- 헬렌카민스키 02-3433-6501
- 록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 분다삼 02-3444-3300
- 루이비통 02-3432-1854
- 구찌 1577-1921
-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4854
- 펜디 02-2056-9023
- S.T. 유트 02-2106-3577
- JBL 02-553-3162
- 10 포르소 코모 02-3018-1010
- 겐조 02-6905-3523
- 프라다 02-3218-5331

화려한 플로럴 패턴이 돋보이는 셔츠보다 가격 미정 톰 브라운 by 10 포르소 코모.

페라리 스쿠데리아 포르테 EDP 문의 (주)코의 080.800.8808



LITERALLY YOU.



SCUDERIA FERRARI FORTE



레이보 컬러가 돋보이는 브라운 백, 29X21cm, 8백만원대, 스트랩 50만원대 모두 **별도**.

간주를 연출한 세련된 느낌의 소재 유스도인 2020년엔 **플라자벨트**.

화이트 진이나 데님과 잘 어울릴 만한 소라색 니트 1백95만원 **플 브라운**.

투명한 렌즈와 볼드한 레드 반무테 프레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프라다**.

발목을 휘감는 태슬 장식의 스트랩이 특징인 웨지 샌들 1백10만원대 **루이비통**.

마치 이자수 패턴이 그려진 듯한 컬러 크리스탈 장식이 돋보이는 네크리스 54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팬디의 스트랩 유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트 헤어 클립 22만원 **팬디**.

레드 컬러 레터링과 폼폰으로 포인트를 준 라피아 소재 클러치. 21X36cm, 12만5천원 **피티마 모로코 by 비이커**.

화사한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다섯 가지 페이스 커버를 취향에 따라 매치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59만8천원 **캐논**.

생태적인 디자인에 북유럽풍의 스칸디나비아의 미니멀리즘을 담은 1백19만원 **코노스-한류패션**.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 가능한 코브라 가죽 벨트 60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이국적인 드레스를 연출하는 화분 케이크 22만원 **프라다**.

꽃과 태슬이 어우러진 가죽 브레이슬릿 25만원 **슈룩 by 10 코르소 코모**.

플라워 모티프의 드림 이어링 20만원대 **사프사루 by 분더삼**.

플 브라운 02-6905-3697 갈라젤트 02-3443-2016
 프라다 02-3218-5331 벨보 02-3449-5916
 스와로브스키 1661-9060 루이비통 02-3432-1854
 팬디 02-2056-9023 비이커 02-543-1270
 캐논 1588-8133 크리스찬 루브렘 02-541-8550
 구찌 1577-1921 보테가 베네타 02-515-5840
 프라다 02-3218-5331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분더삼 02-2056-1234 디올 02-3480-0104

에스키 패턴이 돋보이는 캔버스 소재 드레스 가격 미정 **디올**.

GG 웨이버 프린트 장식의 드루스트링 백팩, 38X45cm, 1백30만원 **구찌**.

for her Selection

보기만 해도 시원한 라피아 소재부터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아이탬까지, 유행을 더욱 경쾌하게 해줄 로맨틱 서머 아이탬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피부 속 어둠을 꼼꼼하게 밝히다
 화이트 로지스트 브라이트 익스프레스

DECORTÉ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38-6118 무역센터점(2F) 02-3467-8471 천호점 02-2225-8989 중동점 032-623-2151 판교점 031-5170-3194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02-310-5062 강남점(2F) 02-3479-6050 동대구역점 053-661-1877 AK PLAZA 분당점 031-703-3478 롯데백화점 본점(81) 02-772-3157 잠실점 02-2143-7976
 온라인 쇼핑몰 Lotte.com/mail.shinsegae.com/Hmail.com/akmall.com/Lotteimall.com/cjmall.com/GSshop.com/ellotte.com 고객상담 080-568-3111

classic Returned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 중 하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설적인 위치의 화귀, 비로 북각 위치의 등장이다. 브랜드 최초의 빈티지 위치를 오마주한 모델부터 탄생 기념일을 자축하는 기념비적인 스페셜 에디션까지, 관록이 묻어나는 빈티지 위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테그호이어 오토비자 2017 라-에디션 테그호이어 워치 컬렉션의 애장품인 1960년대 전설적인 드라이버 워치, 오토비자가 올해 강렬한 모습으로 컴백했다. 자동차(AUTOMOBILE)와 항공(AVIATION), 두 단어를 합쳐 지은 이름에서도 이컨셉티블을 느낄 수 있는 오토비자 컬렉션이 탄생 55주년을 맞아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무브먼트로 재탄생했다. 빈티지 모델 중 약 5만 명의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오토비자 린트를 재해석했고, 이는 F1 드라이버인 요한 린트가 즐겨 착용하던 모델이기도 하다. 회전 베젤과 달팽이 모양의 카운터,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하는 흑백 컬러는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하고, 다이얼 크기는 기존 39mm에서 42mm로 더욱 대담해졌으며, 새로운 호이어 02 칼리버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해 성능은 더욱 파워풀해진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776-9018

블랑팡 피프티 퍼센트 비티스카프 블랑팡의 워치 컬렉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징적인 다이얼 위치인 피프티 퍼센트 비티스카프다. 1960년대에 처음 출시해 큰 인기에 힘입어 남성 제품은 물론 여성 워치까지 라인업을 확장시킨 이 컬렉션은 올해 빈티지 퍼피티 퍼센트에서 영감을 받아 케이스, 핸즈 등은 오리지널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고, 새로운 38mm 사이즈에 상해를 연상케 하는 영롱한 딥 블루 칼리로 선보인다. 약 300m 방수 기능을 갖추고, 칼리버 1150을 탑재했다. 더불어 베젤은 블루 세라믹으로 완성했으며, 인테스는 안정성이 높은 리퀴드메탈로 표시해 내구성과 가독성을 업그레이드했다. 문의 02-6905-3367

제너스 해리타지 146 크로노그래프 1백5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제너스의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계다. 1960년대 제너스의 역사적 모델을 재해석해 선보이는데, 오리지널 버전과 같이 날짜창 없이 2개의 카운터로 이루어진 다이얼이 돋보인다. 시간당 3만6천 번 진동하는 엘 프리메로 칼리버 4069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센트럴 초침과 3시 방향의 30분 카운터가 특징이며 타기터 스케일을 제공한다. 로동 코팅한 핸즈를 장착한 트로피칼 브라운 혹은 블루 스테이 패턴의 다이얼,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279-9034

론진 린드버그 아워 앵글 워치 90주년 북각 위치 트렌드의 주역은 올해 창립 1백85주년을 맞이한 론진이다. 수많은 론진의 전설적인 워치 중, 미국인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하고 론진 시계를 착용한 최초의 대서양 무적륙 단독 비행 기념인 아워 앵글 워치는 출시 90주년을 맞아 9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다시 태어났다. 빈티지한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직경 47.5mm의 카운터 다이얼이 돋보이며 균사체를 조절할 수 있는 회전 베젤과 초와의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회전 중앙 다이얼을 장착했다. 문의 02-3149-9532

블랑팡 트리뷰트 투 피프티 퍼센트 MIL-SPEC 다이얼 위치의 생명은 단연 안전을 위한 정확성이다. 1950년대에 선보인 가장 완벽한 다이얼 워치인 빈티지 MIL-SPEC에서 영감을 받은 이 시계에서 당시의 해리타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은 바로 6시 방향에 위치한 수심성 디스크다. 이는 그 이전 액티비티 시계 케이스 안으로 침투하던 6시 방향의 작은 디스크가 화이트에서 레드 칼리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것. 이와 더불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블랙 배경에 대비를 이루는 화이트 발광 인덱스와 핸즈를 다뤘는데, 이 역시 오리지널 모델에서도 볼 수 있는 디테일이다. 300m까지 방수 가능한 것은 물론, 블랑팡의 뛰어난 발명품 중 하나인 단방향 로테팅 베젤을 적용해 안정성을 더욱 높였으며, 인허우스 와우딩 칼리버 1151을 장착했다.

브라운링 슈퍼오션 해리타지 II 크로노그래프 46 오리지널 슈퍼오션 로고가 문보이는, 브라운링 슈퍼오션 해리타지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보이는 에디션. 독특한 모양의 핸즈와 원뿔형 아워 마커 디테일이 1957년 오리지널 모델을 연상시킨다. 오리지널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규림과 충격에 강한 초강도 최첨단 세라믹 소재로 만든 링을 적용한 스틸 베젤 디자인이다. 직경 46mm의 케이스 사이즈로 선보이며 새로운 라버 가죽 스트랩은 물론 1957년 오리지널 버전을 재현한 우븐 스틸 브레이슬릿까지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79-9053 에디터 권유진, 이자연

숨길 수 없는 혜택을 더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삼성프리미엄카드



THE
BENEFIT
Surprise
BY SAMSUNG CARD

프리미엄카드의 기본혜택에, 놀라운 추가혜택을 더하다
THE BENEFIT Surprise
특급호텔 패키지 특가 (7월, 12월), 특급호텔 스파1+1 (4월),
특급호텔 레스토랑 할인 (9월), 고급 와인 할인 (6월) 등



www.samsungcard.com

※ 상기 프로모션은 예시입니다. 카드사 및 제휴사의 사정으로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이 내용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 프로모션별 자세한 이용조건은 각 행사 월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삼성카드 SAMSUNG

match Point

양말의 패턴이나 컬러만 잘 선택해도 매번 신어오던 클래식한 슈즈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슈즈의 디테일을 고려한 센스 있는 양말 매치가 궁금하다면? 실용적인 스타일링 팁으로 가득한 이 페이지를 놓치지 말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가질 패턴의 양말을 슈즈 색상과 맞춰 톤온톤 느낌으로 매치해본다.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상의 레이아웃 슈즈 2백41만원대 **벨루티**. 이가질 체크 패턴 양말 1만6천원대 **니탄**. 자칫 너무 튀지 않을까 싶은 보라색 양말은 네이비 컬러 슈즈와 함께 연출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센스 있는 컬러 매칭을 할 수 있을 것. 네이비 컬러 스트라이프 티프 슈즈 2백22만원 **브리오니**. 퍼플 색상의 양말 6만8천원 **브리오니**. 라이트 그레이 색상에도 포인트 컬러를 더하면 볼루만 한 색도 없다. 태슬 장식의 그레이 컬러 로퍼 1백30만원 **신토니**. 플라워 프린트 패턴 양말 1만9천원 **린스미어**. 때로는 톤온톤으로 컬러를 통일하는 대신 생각지 못한 보색을 대안해보자. 개미가 귀여운 무늬까지 더해진 더욱 재미있는 도안이 어울릴 듯. 짙은 올리브 색상의 페니 로퍼 80만원대 **에르메네제일** **재나 세인트스킨 갑옷 컬렉션**. 다이아몬드 패턴 캐주얼 컬러 양말 1만9천원 **린스미어**. 단조로운 디자인의 슈즈엔 솔리드 양말보다는 복잡한 패턴을 기미한 양말을 추천한다. 부드러운 송이치 가족 소재의 페니 로퍼 2백21만원대 **볼 포드**. 빈북적인 각자투투의 그린 컬러 양말 2만9천원 **브리오니** **by 유니페어**. 브라운 색상의 몽크 스트랩 슈즈엔 짙은 와인 컬러 양말을 더해 클래식함을 강조할 것. 송이치 가족 소재의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50만원대 **보스 맨**. 버건디 컬러 양말 6만8천원 **브리오니**. **에디터 이재현**

벨루티 02-547-1895 **니탄** 02-6905-3920
보스 맨 02-515-4088 **볼 포드** 02-6905-3534 **유니페어** 02-542-0370 **에르메네제일**
도 재나 02-3479-6297 **린스미어** 02-542-4177 **신토니** 02-511-2573 **브리오니** 02-516-9686



mastery of an Art

장인 정신이 보여주는 섬세함의 극치, 세월의 향기와 스토리가 느껴지는 전통적인 멋,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가치. 시공을 초월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주얼리와 공예품이 아름다운 조우를 했다. 교토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와 일본의 전통 공예 작품이 그 주인공이다.

경이로운 주얼리 메이킹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와 일본의 전통 공예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마스터 오브 아트: 반클리프 아펠 - 하이 주얼리와 일본 공예 작품> 전시회가 싱그러움 4월, 교토에서 공개되었다. 유니크한 스타일과 독보적인 하이 주얼리 메이킹 노하우로 유명한 반클리프 아펠은 전 세계의 여러 박물관에서 헤리티지 컬렉션의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토에서 열리게 된 것. 섬세한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본 전통 공예품과 반클리프 아펠의 만남은 원치 않았을 것 같지만 꽤나 신선한 만남이기도 하다. 품격과 전통의 향기가 짙은 일본의 고도가 주는 특별한 느낌은 전시회에 깊이를 더해준다. 교토는 약 1천2백 년 전부터 메이지 유신의 시작인 1868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다. 교토에서는 794년부터 장인 정신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화려하고 정교한 기법의 짜기, 염색, 자수, 칠기 등 고유한 기법은 교토의 화려한 공예품을 위대한 유산으로 만들었다.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세대를 거쳐 예술의 경지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클리프 아펠과 교토는 완벽한 공감대를 이룬다. 이 두 가지 유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교토는 전시 공간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을 비롯해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일본 핫카이도 출신의 젊은 건축가 후지모토 소우가 디자인했는데, 심플하면서도 차분하지만 정교하고 딱 찬 느낌을 주는 공간에서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은 조화롭고 은은하지만 강렬한 오라를 발산한다. 또 노송을 이용한 역동적이면서도 순수한 이미지와 투명한 케이스를 활용한 모던하면서도 정적인 이미지는 전시 공간 자체가 선사하는 다양성의 조화를 만끽하게 해준다. 1906년 메종 설립부터 지금까지 1백 년 이상 지속된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 메이킹 역사는 꿈의 주얼리라는 수식어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반클리프 아펠은 오랜 시간 동안



안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한 놀라운 작품을 아카이브에 보관하고 있다. 이번 교토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대부분 192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메종의 워크숍에서 제작한 것으로, 전시 자체는 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는 주얼리 작품 속에서 우아하게 자리하며 또 다른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것은 사이사이에 함께 전시된 일본의 전통 공예 작품이다. 페브릭, 도자기, 금속 등을 사용한 일본의 공예품은 이미 예술의 경지로 평가받는다. 염색, 워빙 기법, 전통 목공예, 옷칠, 도예 등 일본 중요무형문화재 장인들의 특별한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을 발하지만, 함께 전시한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를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사한 기법을 비교하며 그 스타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즐거움은 전시회의 색다른 묘미이기도 하다. 전통과 미

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이 시공을 초월한 결합은 문화와 예술을 다스릴 생각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서로를 존중하며 문화적 교류를 시도하는 그들과 장인 정신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상대적으로 부러움을 느끼게도 만든다. 변하지 않는 가치,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가치. 이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의 힘이 아닐까. 하이 주얼리를 대표하는 반클리프 아펠의 소중한 역사와 더불어 문화와 유산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전시회다. 전시회는 오는 8월 6일까지 일본 교토의 국립근대미술관에서 계속된다. <http://highjewelry.exhn.jp>

1 시간이 멈춘 듯 은은한 조명과 심플한 공간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와 일본 전통 공예품이 우아한 풍경을 선사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2 이 전시회의 메인 포스터 주인공으로 등장한 반클리프 아펠의 후크사아클링, 1968년 작. 3 반클리프 아펠의 대표적 유산 중 하나인 스페이스 발레리나 클립, 1941년 작. 4 인도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반클리프 아펠의 화려한 네크리스, 1971년 작. 5 색상이 화려한 나비와 꽃 이라베스크 패턴 장미리, 6 공작 자수 스크린, 정교함과 화려함에 눈을 땔 수 없다. 7 펄피유 아펠, 1923년 작. 8 세 모티브의 브로치, 1924년 작.

▲에르메네제일 유한정, 이나리테 이세형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장품도 바꾸어야 한다. <스타일 조선포> 에디터가 제안하는 서머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리퀴드 블러셔 오르가즘 이블만클이나 섹시하고 생기 있는 핑크를 더해주는 나스의 전설적인 블러셔인 오르가즘이 리퀴드 타입으로 출시되었다. 한 병을만으로 피부에 핑크빛 광채가 은은하게 퍼지며, 미세한 광을 함유해 피부 톤은 물론 피부결 또한 매끈해 보이는 효과를 더한다. 특히나 저녁 데이트가 있을 때 더욱 타차해 달라주며, 어두운 조명 아래 더욱 섹시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15ml 4만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권유진*

해리 워그 & 빅토르 라이크 잇 루즈 홀릭 147호 이 립스틱이 바로 뷰티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유명한 '전지현 립스틱'! 특목 튀고 생기 넘치는 핑크 컬러도 예뻐지만, 전 세계 디퓨즈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는 프랑스 파리의 디지털 브랜드 워그 & 빅토르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사랑스러운 패키지가 단연 돋보인다. 3g 3만5천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권유진*

랑콤 썬머 스팅 벨드 펄 브론저 앤 블러셔 울어름,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 휴양지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주목할 것. 두 가지 톤의 브론저와 블러셔를 함께 구성한 팩트로, 이 제품 하나면 햇빛에 건강하게 그늘린 듯 섹시한 컨투어링 패키징을 완성할 수 있다. 14g 1만5천원. 문의 080-001-9600 *_by 에디터 권유진*

더하스드 오브 후공전황: 설 마백 수분 크림 화이트닝 제품은 건조하다는 편견을 깨줄, 브랜드의 대표적인 마백 라인 크림. 궁중 비빔을 재해석한 귀한 성분의 조합으로 완성한 이 제품은 피부에 바로자마자 마지 미세 물방울이 피부 속까지 깊이 스며든 것처럼 즉각적인 수분감과 꿀링 효과를 선사한다. 60ml 1만6천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이지현*

비비 브라운 쉐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한여름 덥고 습한 날씨에도 쉽게 번지지 않는 아이리이너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 비비 브라운만의 특별한 왁스 배합 비율로 인크가 뭉침 없이 피부에 밀착되며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된다. 0.12g 3만9천원. 문의 02-3440-2781 *_by 에디터 이지현*

톰 포드 뷰티 미스트 향수 울 오버 보디 스프레이 톰 포드 뷰티에서 관능적이고 세련된 여성을 위한 베스트셀러 향수인 네뮬리 포르토포노 컬렉션은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보디 스프레이를 선보였다. 선명한 블루 패키지가 시원한 여름 제품을 드러내는데, 샤워 직후는 물론 외부 활동 시 건조하게 느껴질 때 수시로 뿌려준다. 150ml 9만5천원. 문의 02-3440-2760 *_by 에디터 배미진*

아베다 클링 밸런싱 오일 컨센트레이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목과 어깨가 빠근하다면 이 오일을 등장시킬 것. 100% 자연 유래 성분인 페퍼민트, 멘톨, 블루 케미칼로 이루어진, 작고 슬림한 톤은 티인 오일이다. 손목이나 관통선이, 빠근한 피부에 씩씩 달라붙기만 하면 시원한 클링 효과가 발현되면서 기분이 뜨프시 되는 것은 물론 피로, 근육통까지 해소되니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의 필수품이 아닐 수 없다. 7ml 2만8천원.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권유진*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마이크로 알게 포어 미니미징 하이드라 로션 고가 화장품 브랜드에서 주로 만나볼 수 있는 해조류 성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에스티 로더의 신제품 로션. 가볍게 사용하는 간단한 사용감에 비해 촉촉함과 모공 축소 효과는 즉각적이다. 여름철 자극 없이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듯. 100ml 6만3천원. 문의 02-3440-2772 *_by 에디터 배미진*

다올 하이드라미프 프래쉬 하이드레이션 스킨 크림 상상의 마법적인 텍스처, 여자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수분 크림의 이상형. 여러 번 덧발라도 쭉쭉 수머들과 피부에 닿는 순간 차갑게 스며들어 피부 표면의 열을 내리고 즉각적인 탄력을 선사한다. 50ml 9만원. 문의 080-342-9600 *_by 에디터 배미진*

클라린스 뉴 하이드라-에센셜 클링 젤 여름에 바르기 딱 좋은 클링 젤 텍스처의 수분 크림으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세안 후 꺼내 바르면, 살짝 인 사벳과 같이 즉각적인 클링 효과는 물론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생명의 잎이라 불리는 칼란코에의 풍부한 식물 성분이 이상적인 수분 비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50ml 6만2천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이지현*

프래쉬 리미티드 에디션 엄브리안 클레이 퓨리피잉 마스크 클레이 성분을 사용한 한정판 패키징 마스크.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자연인 울브리아의 도자기 공방인 로메와 칼라파리산에서 출시된 제품이다. 고대 로마의 유서 깊은 역법을 지닌 울브리아 지역의 클레이를 사용해 더욱 특별하다. 자진 피부를 자극 없이 딥 클렌징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 사용 후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것도 장점. 100ml 8만6천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배미진*

겔랑 메테오리트 벨스데이 캔들 풀 파우더 피부에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광채를 부여하기엔 이만한 것도 없다. 알링 구슬 파우더라 불리는 이 제품은 1987년 처음 선보인 메테오리트 케이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틴 케이스가 돋보인다. 얼굴에 생광을 주는 골드 필, 광채를 선사하는 핑크 필, 화이트 필, 그리고 사마링 효과를 발휘하는 실버인 필로 구성해, 메이크업을 마친 후 얼굴에 가볍게 뿌려주기만 하면 된다. 25g 8만5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이지현*

아름 블루 카모미일 페이스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가장 쉽고 편하게 수분을 충전할 수 있는 스페셜 케어 제품. 산뜻한 젤 타입이라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며, 오래도록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또 로즈메리 알라 리벤더 추출 에센셜 오일 등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성분으로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 향기를 안겨준다. 특히 스킨케어 루틴이 짧은 고급 에스테틱 샵에서 관리받는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60ml 6만9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이지현*



Time to Shine

LA의 뜨거운 태양, 로맨틱 할리데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리조트 룩. *photographed by kim yeon jun*

클링 밸런싱 오일, 클라린스 마이크로 알게 포어 미니미징 하이드라 로션, 비비 브라운 쉐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마이크로 알게 포어 미니미징 하이드라 로션, 아베다 클링 밸런싱 오일.



코만투인 패턴이 돋보이는 슬리퍼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자일버티스타 발리, 보 버클 앵클 스트랩 슈즈 2백50만원대
로저 비비에, 발레 초커 네드리스 23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블랙 레이스와 그린 플라워 패턴이 어울린 롱 드레스 가격 미정
발리타니, 임시미 모티브 이터널 가격 미정 앵클 스트랩 슈즈 2백50만원대
로저 비비에



블랙 레이스와 그린 플라워 패턴이 어울린 롱 드레스 가격 미정
발리타니, 임시미 모티브 이터널 가격 미정 앵클 스트랩 슈즈 2백50만원대
로저 비비에



플라워 패턴 수영복 60만원,
그린 플라워 패턴 벨트 1백29만원
모두 몽클레르, 실버 앵글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골드 스카어 드레스 이어링, 블루 스카어
드레스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헤르메스

레드 스트라이프 패턴 코인트
니트 롱 64만원, 플라워 패턴
스윙 브리프 60만원 모두
몽클레르, 볼드한 골드 이어링
5만8천원 빈티지 할리우드





강임 채근 패턴이 로보이는
캐시미어 카디건,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내추럴한 해센 소재의 물
2백60만원대 로저 비비에



플루워 모티브와 스트라이프 패턴이
조화로운 드레스 가격 미정
살바토레 페라기오, 레드 & 화이트 컬러
드레스 이어링 12만8천원 헤르메스
원형 모티브의 골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화이트 레이스 디테일의 슬리이드
슈즈 2백10만원대 로저 비비에



로브 스타일의 레드 컬러 드레스
 가격 미정 슬리브스, 골드한글드
 이아림 28만9천원, 앙송이
 레이어드한 골드 나일론 12만5천원
 모두 앙크, 비브 슬라이드 슈즈
 1백97만원대 로저 비비에.

레드 패턴 슬리브리스 원피스
 가격 미정 스포트맥스,
 비브 블랙 슬라이드 슈즈
 1백90만원대 로저 비비에.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앙주 02-3446-3068
- 토즈 02-3438-6008
- 지암비타스타 발리 02-6905-3357
- 타니 by 마네테니 02-6905-3583
- 몽클레르 02-514-0900
- 빈티지 할라우드 02-6224-2203
-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 렉토 02-1522-7720
- 셀린느 02-6979-0607
- 앙크 070-8733-2237
- 스포츠맥스 02-3467-8326
- 삼바토레 페라카모 02-3430-4854
- 에트로 02-511-2572
- 발렌티노 02-543-5125
- 에르메스 02-544-7722



헤어 & 메이크업 soo yoo kim
 모델 kiara hovland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THE ART of THE WILD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태어났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티파니는 이러한 보석의 힘을 민기에 매년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최상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블루 북(Blue Book) 컬렉션을 선보인다. 올해는 탄생 1백80주년을 맞아 야생의 경이로움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야생의 예술: 아트 오브 더 와일드(The Art of the Wild)'를 주제로 삼았다. 그 섬세한 숨결, 보석이 자아내는 최고의 예술적 가치가 지금 펼쳐진다.

천국의 발견(Paradise Found)

(왼쪽 상단 네크리스) 숨죽여 자연의 비밀을 속삭이는 열대우림의 에너지. 이 미묘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 티파니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세공한, 3백50개가 넘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18K 골드 잎사귀는 움직일 때마다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낸다. 이 잎사귀들을 한데 이어주는 것은 라운드 파베 다이아몬드 스티치. 총 60캐럿에 달하는 2백 개 이상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가 잎사귀들을 지탱하고 연결해준다. 움직임에 따라 아름답게 빛을 발해, 착용했을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광채의 폭포수(A Rush of Brilliance)

(왼쪽 아래 네크리스) 웅장한 폭포의 장엄함을 주얼리에 담아냈다는 것 자체가 티파니 하이 주얼리의 가치와 품격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과 웅장함에 깊은 감명을 받은 티파니는 라운드·바게트·페어 셰이프 컷의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공해 물의 가장 강렬한 형태인 폭포수의 모습을 담아냈다. 네크리스의 가장자리부터 흘러넘치는 폭포의 형상과 절벽을 따라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 장대한 물줄기를 제각각 다른 길이의 파베 다이아몬드로 표현해 웅장한 폭포수의 장관을 연출한다.

자연의 번영(Natural Flourish)

(왼쪽 정중앙 브레이슬릿) 자연의 생명력과 재생이라는 테마를 구현하기 위해 뻗어나가는 나뭇잎을 예술적으로 다시 탄생시킨 아자수 모티브의 하이 주얼리. 드라마틱한 그린 컬러 아자수 잎을 형상화한 18K 골드 에치보라이트와 옐로 사파이어를 세팅해 눈부신 빛으로 손목을 감싸 안는다. 끈질긴 생명력과 번영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컷 브레이슬릿이다.

타오르는 아름다움(Blazing Beauty)

(왼쪽 아래 이어링 두 세트) 끝없이 태양을 뻗어나가는 식물의 잎이 재생을 의미하는 하이 주얼리 이어링. 정교한 세공으로 완성한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주인공이다. 드라마틱한 디자인과 디테일이 돋보이는 열대우림의 아자수 잎 모티브는 다양한 사이즈의 미스드 컷 다이아몬드로 자연의 생명력을 구현했다. 착용하는 이의 움직임으로 다양한 광채를 만들어내기에 진정한 마스터피스라 할 수 있다.

천국의 새(Bird of Paradise)

(오른쪽 상단 새 모티브 브로치) 이국적인 새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브로치가 되었다. 티파니의 장기인 켈스톤을 섬세하게 세공해 표현해낸 깃털은 마치 실제 새의 날갯짓과 움직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정교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채, 음영을 반영하고자 대부분의 스톤은 커스텀 컷으로 세팅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듯 생명의 기운을 표현한 디자인, 깃털의 곡선은 오직 장인들의 손끝에서만 완성되는 절대적인 기술의 결과다. 에디터 배미진



보다 모던하고 중성적이면서 존재감이 확실한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미디어 모델. 까르띠에만의 뛰어난 주얼리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링크 구조의 브레이슬릿은 마치 팬더 한 마리를 손목에 올려놓은 듯 편안하고 유연하게 흐르는 착용감이 특징이다. 클래식한 18K 옐로 골드 모델부터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18K 핑크 골드, 18K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도 선보인다.



legendary Femin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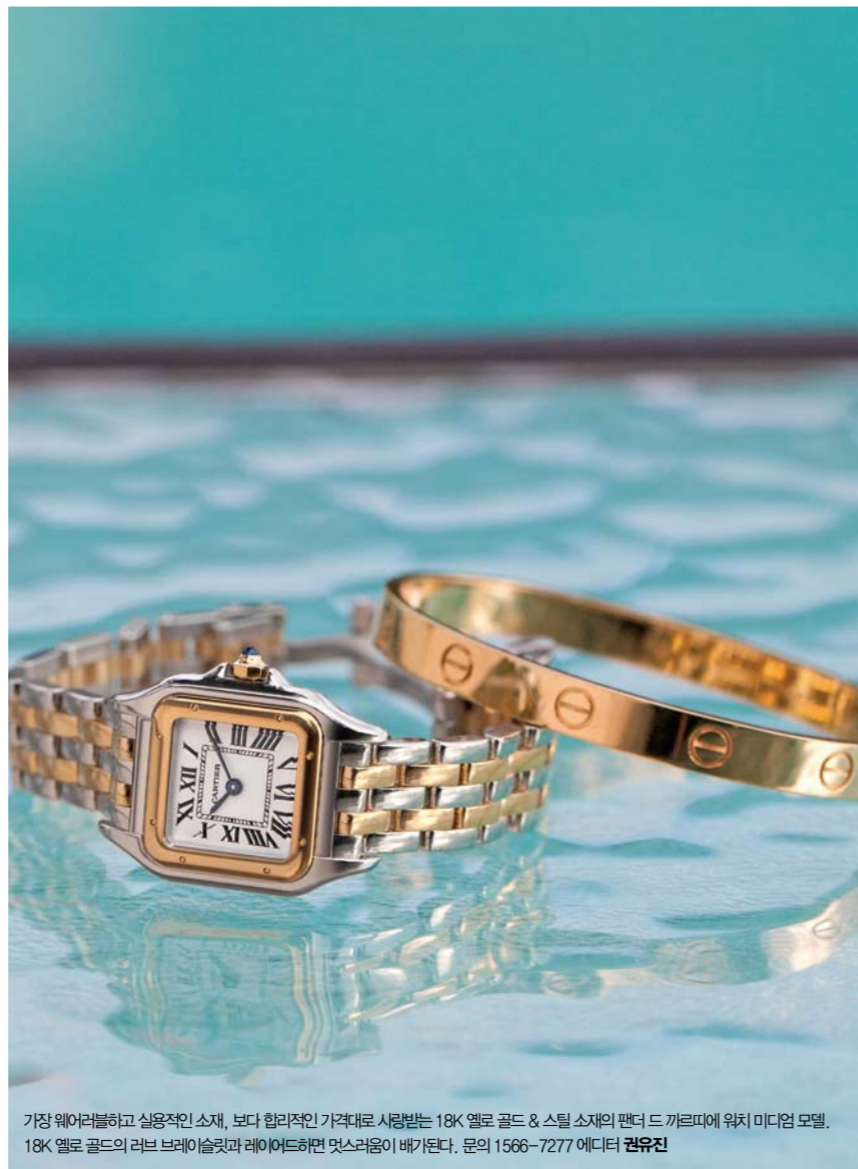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의 가장 큰 매력은 마치 하나의 주얼리처럼 다른 주얼리와 미스 매치하면 더욱 스타일리시하다는 것. 까르띠에의 아이코닉 주얼리인 라브 브레이슬릿, 자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을 여러 개 레이아웃해도 과하지 않고 세련된 맛을 풍긴다. (왼쪽부터) 라브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18K 옐로 골드 스톤 모델, 자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 스톤 모델.



코나가 한층 부드러운 신트스 스틸의 세이프, 까르띠에 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로마숫자와 레일 트랙 인덱스, 사모어 크라운, 여기에 까르띠에만의 전문적인 주얼리 메이킹 노하우로 완성한 생생한 브레이슬릿이 단연 돋보이는 팬더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톤 사이즈 버전으로, 데일리 워치로는 물론 클래식하면서도 이브닝 웨어에 매치해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의 까르띠에 팬더(Panthere)가 돌아왔다.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비율과 특별한 브레이슬릿의 조화로 세련된 품격을 지닌 까르띠에의 뮤즈, 팬더. 탄생 30여 년이 지난 올해, 오리지널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은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가 당신의 손목을 아름답게 빛낼 준비를 마쳤다.



가장 웨어러블하고 실용적인 소재, 보다 클래식한 가죽대로 사랑받는 18K 옐로 골드 & 스톤 소재의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미디어 모델. 18K 옐로 골드의 라브 브레이슬릿과 레이아웃하면 멋스러움이 배가된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RICHARD MILLE

innovative Experience

청담동에 새바람이 분다. 바로 리차드 밀(Richard Mille)의 새로운 부티크가 그 주인공이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시선을 사로잡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기계식 워치 시장의 새 지평을 연 스위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리차드 밀. 이제는 청담동에 위치한 새로운 부티크에서 브랜드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시계의 새로운 비전을 만나볼 시간, 리차드 밀 청담 부티크 인상적인 토너형 케이스와 시선을 압도하는 기계적인 구조, 대담한 브랜드 DNA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워치 시장을 사로잡은 리차드 밀. 지난 4월, 새롭게 오픈한 리차드 밀 청담 부티크는 브랜드가 지닌 독보적인 정체성과 과감한 가치를 모두 표현해냈다. 먼저 거대한 파사드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이는 리차드 밀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RM008'을 형상화한 대형 유리 조형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1층과 2층에 걸쳐 높이 8m에 무게 2.5톤으로 설치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였다고. 리차드 밀 청담 부티크만을 위해 제작한 이 설치물은 특수한 LED 조명으로, 한국의 새로운 플래그십 매장을 찾은 이들의 여정에 빛을 비추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큰 포부를 표현했다. 총 2층으로 구성된 이 매장은 리차드 밀의 최신 콘셉트를 반영한 부티크로 밤과 낮, 어둠과 빛, 비밀과 순수한 지식이 공존하는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렸다. 이 멋진 전경과 세부 디자인 콘셉트는 리차드 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멜라니 트레톤-몽세롱(Melanie Treton-Monceyron)의 진두지휘 아래 탄생했다. 그녀의 세심한 손길이 담긴 수공 벽체와 조명, 그리고 유리 반사체는 세련되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스포츠 시계에서 고성능 타임피스를 거쳐 리차드 밀 여성 컬렉션과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유니크 피스에 이르기까지 총 48개에 달하는 다양한 모델은 특별한 쇼케이스 안에 진열되었다. 바로 각 모델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자 시계의 모든 메카니즘이 다양한 각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설계한 것. 이뿐 아니라 2층으로 이어지는 28개의 계단을 오르면, 리차드 밀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공간이 펼쳐진다. 이곳에는 특별 제작해 편안한 자세로 리차드 밀의 타임피스 컬렉션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볼랙 가족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인체 공학적으로 제작한 리차드 밀의 시계와도 비슷하다. 이처럼 리차드 밀이 간직해온 시계 제조 기술의 깊이 있는 멋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리차드 밀 청담 부티크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그 누구와도 다른,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선사하는 브랜드 리차드 밀 청담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리차드 밀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적인 형태의 토너형 케이스다. 그런 이유로 리차드 밀의 정체성을 패션 용어에 대입하자면 '클래식' 또는 '모던'이라기보다는 '아방가르드'에 더 가깝다. 물론 리차드 밀의 인상적인 디자인만큼이나 기계적인 완성도 또한 뛰어나다. 이는 필요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브랜드 모토에 따라, 리차드 밀의 시계에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을 위해 존재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압도적인 오차를 내뿜는 리차드 밀 시계의 디자인은 제품 하나하나에 쓰인 무브먼트와 기발한 신소재로 뒷받침된다. 마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레이싱 카에서 각 기능이 하나의 형식을 만들



- 1 지난 4월, 새롭게 문을 연 리차드 밀 청담 부티크. 리차드 밀의 아이콘이던 워치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RM008을 형상화한 거대 파사드 장식이 돋보인다.
- 2 리차드 밀 부티크 내부.
- 3 특유의 감각적인 곡선의 토너형 케이스에 다이얼 중앙의 보석 세팅으로 화려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독창적인 CRMA2 칼리버를 장착한, RM 07-01 레이스 워치. 4 미국 골드 선수 바바 왓슨을 위해 만든, 투르비옹 메카니즘과 특허를 받은 G 센서가 결합된 RM 39-01 G-센서 투르비옹 바바 왓슨.

어내듯 리차드 밀에 있어 스크루와 파니언, 레버, 스프링 등 모든 요소는 반드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동시에 높은 안전성과 정확도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시계에 대한 리차드 밀의 접근법은 디자인의 선행부터 시계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예로 시계의 무브먼트와 케이스에 쓰이는 작은 부품인 스플라인 스크루까지 리차드 밀 엔지니어들이 수개월에 걸친 연구를 통해 완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리차드 밀의 하이테크적인 면모는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뿐 아니라 소재의 사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계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소재 개발에서도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에 열정을 쏟아왔으며, 5등급 티타늄과 ARCAP, 카본 나노파이버, 리탈, 세라미 등 기술적으로 다루기 매우 어려운 신소재를 시계 제작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리차드 밀은 스위스 전통 시계 제작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의 02-512-1311 에디터 이지연



4

FASHION

에스카다 멀티 플로럴 시스루 블라우스 에스카다는 세계적인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의 명작에서 영감을 얻은 멀티 플로럴 시스루 블라우스를 출시한다. 강렬한 레드와 고혹적인 퍼플 컬러 팔레트로 수놓은 이 제품은 코트 보일 소재로 만들어 매우 두드러우며,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무드를 자아낸다. 문의 02-3442-5760

파비아나 필리피 2017 S/S 컬렉션 파비아나 필리피는 여름을 위한 보 디테일의 페이한 룩을 제안한다. 보 디테일의 블라우스와 와이드 스커트를 매치하고, 동일한 소재와 디자인의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벼운 모슬린 소재에 정교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더한 투피스 룩으로 세련된 아나와 민스 매치 스타일링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문의 02-6960-0843

에르메스 매중 리오포닝 매중 에르메스 도산 피크가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이번 리노베이션은 RDA의 이티스틱 디렉터이자 전 세계 에르메스 매장의 건

축 책임자인 드니 몽텔(Denis Monte)이 맡았다. 1층에서는 남성 컬렉션을, 2층에서는 여성 컬렉션과 가족 제품을 선보이며, 3층에는 홈 컬렉션과 VIP 라운지가 유지된다. 문의 02-3015-3251

버버리 DK88 백 버버리는 브랜드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 개버린 특유의 질감을 입은 새로운 트랜치 가죽 소재를 사용한 DK88 백을 선보인다. 클래식한 오버사이즈 클로저가 돋보이는 이 백은 남성용과 여성용 2가지 버전으로 소개한다. 톱 핸들 백과 사철 백, 닥터 백 등 7가지 다른 스타일로 출시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킨다. 문의 080-700-8800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시어사커 재킷 에르메네제일도 제나는 무더운 여름에도 남성들의 품격과 우아함을 지켜줄 '시어사커' 재킷을 소개한다. 착용감이 라빈과 비슷한 시어사커 소재는 피부 표면에 닿는 면적을 줄여 시원한 효과를 주어, 대표적인 여름용 패브릭으로 손꼽힌다. 시원한 네이비 블루와 미드 블루, 그리고 체크 패턴으로 선보이니 눈여겨보자. 문의 02-3479-6279

구찌 퀴니 마키엣 핸드백 구찌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대표 삼원인 벌, 모티브 클로저가 돋보이는 퀴니 마키엣 핸드백을 선보인다. 골드 브라스 소재에 진주와 유색 스톤으로 장식한 벌 모양 클로저와 함께 아이코닉한 웹 클라와 패턴을 더해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02-3438-7215



SHOWROOM



타피나 하드웨어™ 트리플 드롭 이어링 타피나는 감각적이면서도 여성적인 매력의 돋보이는 하드웨어™ 트리플 드롭 이어링을 소개한다. 이는 현대 여성의 우아하고 강한 힘과 정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컬렉션으로, 메탈 소재에 인디스트리얼 감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 사이즈가 다른 3개의 볼을 길게 늘어뜨린 디자인이 돋보이며 18K 옐로 골드와 스텔링 실버 소재로 출시한다. 문의 02-547-9488

피아제 알티플라노 60주년 기념 컬렉션 피아제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워치인,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시계판 타이틀이 붙은 알티플라노의 탄생 60주년을 맞아 코발트 블루와 핑크, 그늘을 포함한 다양한 컬러의 다이얼을 적용한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알티플라노는 장식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극도로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34mm와 38mm, 그리고 40mm, 37지 사이즈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540-2297

카르띠에 플래드 카르띠에 카르띠에는 한층 웨어러블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틸 케이스 버전 플래드 카르띠에 워치를 소개한다. 열쇠 모양의 크라운이 특징인 이 시계는 새로운 스틸 케이스와 레드 스트랩을 매치해 31mm, 35mm, 40mm 등 3가지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된다. 문의 1566-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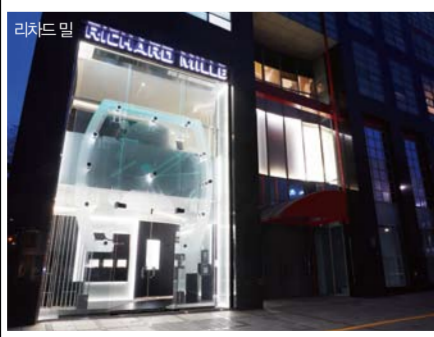
반클리프 아펠 마스터리 오브 아트 전시회 반클리프 아펠은 하이 주얼리와 일본 공예 작품을 주제로 일본

과 프랑스의 경이로운 주얼리 메이킹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리 오브 아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고토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프랑스 예술의 상징인 하이 주얼리와 1천2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전통 공예 작품의 깊은 유대감을 구축하며 약 80가지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75-761-9900

펜디 폴리크로미아 펜디는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델파나 델레트레즈 펜디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폴리크로미아 워치를 소개한다. 펜디의 대담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타임피스로,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조합은 물론 독창적인 비대칭 베젤이 유니크한 매력을 부각한다. 문의 02-2056-9021

리차드 밀 청담 부티크 오픈 리차드 밀은 지난 4월 청담동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했다. 1층부터 2층까지 이어진 청담 매장은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멜라니 트롬-몽세몽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공간은 리차드 밀 시계의 깊이 있는 맛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문의 02-512-1311

판도라 하이 서머 컬렉션 판도라는 여름을 맞이해 트로피컬 파라다이스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서머 컬렉션을 선보인다. 여름 하면 연상되는 조개껍데기와 불가사리, 선물라스 등 휴양지에서 볼법한 모티브를 담아냈다. 블루 가죽 브레이슬릿부터 다양한 서머 스토리가 담긴 침으로 선보이며, 6월 1일부터 전국 판도라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688-5501



페라리 스퀘레리아 포르테 페라리는 남자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향수, 페라리 스퀘레리아 포르테를 소개한다. 에너지가 넘치는 프루티 향에 따뜻한 우디 계열의 향이 어우러져, 마치 차열한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것 같은 짜릿함을 선사한다. 매트한 블랙 파카제 레드 라인 페라리 스퀘레리아 레이싱 밤페 모양의 로고가 남성적인 우아함을 자아낸다. 문의 080-800-8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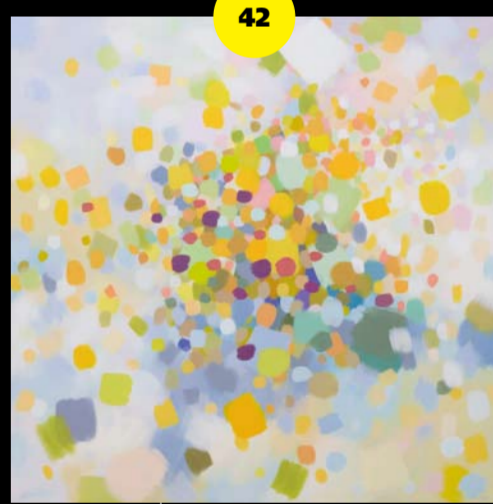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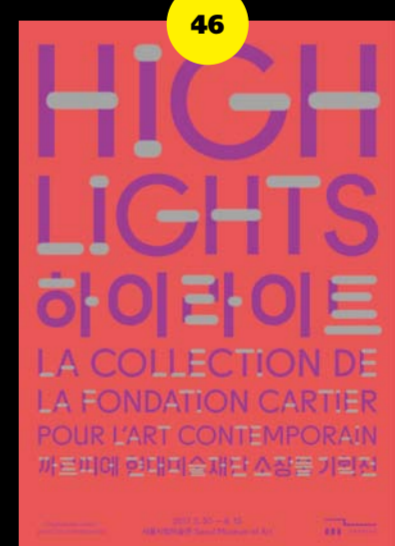
데코르테 라꾸뛰르 퍼펙트 포어 커버 데코르테는 모공과 요철을 정돈해 피부의 결점을 가려주는 부분을 메이크업 베이스 라꾸뛰르 퍼펙트 포어 커버를 선보인다. 뛰어난 피지 흡착 효과와 밀착력으로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며 마치 포토 삼한 듯 결점을 가려줘 완벽한 피부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문의 080-568-3111

BEAUTY

Beyond Horizons



다양성이란 키워드는 혼종의 시대라는 21세기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단어다. 마리로는 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사나 방관의 대상이 되거나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슬람 전통기인 이슬람 교수는 인류의 인식적 진보를 가로막은 걸림돌로 축인에 대한 차별 '탈레 콰르스', 공산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망감을 뜻하는 '레드 콰르스', 그리고 모슬렘에 대한 공포인 '이슬람포비아'를 꼽기도 했다. 종종 잔인한 테러 소식을 들으면 두렵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종교나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자비와 아픔과 고민,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세계를 둘러싼 모든 갈등이 '문명의 충돌'이라기 보다는 이해의 부족에서 온 마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 해야 하지 않을까. 유럽인이 자기들에게 가까운 쪽을 근동, 먼 쪽을 중동, 극동이라고 부른 것처럼 중동은 역사의 중심을 달리해 스스로를 '중양(中樞)'이라고 부르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면서도 사고방식에 자극을 주는 현대미술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힘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모험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는 작가 마크 트웨인은 "여행은 편견, 원고함, 편협함에 치명타를 날린다"라고 했다.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호의 아트+컬처 여행이 지평을 넓히고 시야를 달리하는 데 조금은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 김성연



JEWEL&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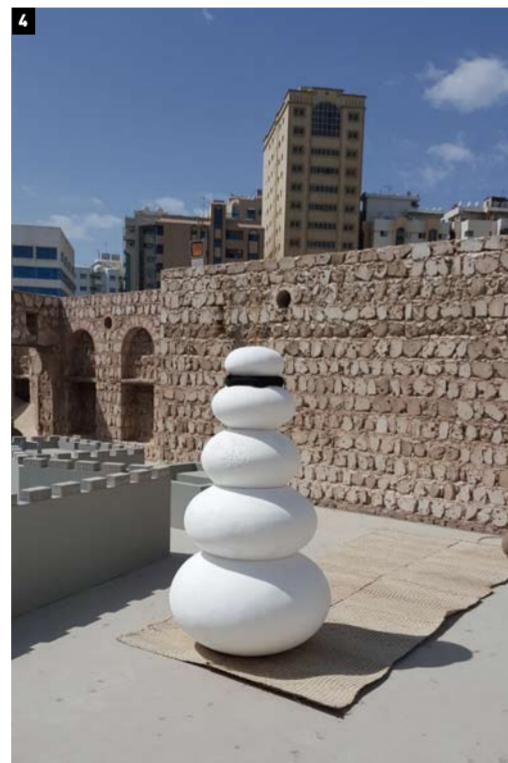
중동의아트마켓, '블루 오션'의 가능성을 정조준하다

아랍권 미술 시장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수요다. 다시 말해 구매자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동 지역이 근대화, 세계화의 대열에 들어서고, 모슬렘 소비 시장이 성장한 데다, 국가 발전 정책도 문화 예술 중심으로 방향을 틀면서 아트마켓도 의미 있는 변화를 겪고 있다.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여러모로 성장 추이가 돋보이는 중동 미술 시장. 과연 세계 미술계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블루 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다음, 돌체앤가버나 등 내로라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이슬람 문화권 여성의 전통 복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에는 패션 잡지 <보그(Vogue)>의 중동판인 <보그 아라비아>가 화제가 됐다. 인쇄판 1호를 내놓은 <보그 아라비아>는 카타르 공주의 후원 아래 이슬람 미술관에서 론칭 쇼를 열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2015년 기준으로 2백58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9년이면 그 2배 수준인 5백43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슬렘 패션 마켓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중동이 세계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의 아트마켓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저마다 성장세가 돋보이는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도하를 중심으로 중동 미술 시장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세상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아부다비와 카타르의 뮤지엄 컬렉터

미술관은 그 첫 번째 걸인자다. 대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주자는 카타르. 카타르 뮤지엄 본부는 무려 20억달러(약 2조2천억원)를 들여 약 9백 점의 소장품을 수집했다. 또 1903년 설립된 유서 깊은 이집트 카이로의 이슬람 미술관은 1천만달러(약 1백12억원)를 들여 8년간의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2010년 재개장했으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이슬람 미술관도 약 4만 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수도 아부다비가 펼치는 행보 역시 돋보인다. 2007년 루브르 미술관과 협약을 맺고 분점을 준비 중이며,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에도 성공했다. 각각 장 누벨과 프랭크 게리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고, 총 2백90억달러(약 32조원)의 예산을 들여 두 미술관이 들어설 사디야트 섬을 조성 중이다.



올해의 두바이 아트 위크에는 마나랏 알 사디야트(Manarat Al Saadiyat) 전시장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을 소개했고, 세계적인 건축 사무소 BIG이 설계를 맡은 전시장 '창고 421'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인의 장신구들: 보이는 & 보이지 않는(Emirati Adornment: Tangible & Intangible)>이라는 제목으로 UAE 지역의 공예, 민속,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전시가 열렸다. 해나 염색, 독특한 화장법, 차 문화 등 일상의 소소한 면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한 이번 전시는 앞으로 이슬람 미술관의 방향이 단지 유물 수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폭넓게 뻗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미술관 건립 붐이 단지 중동 지역 내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다. 아부다비에 분관을 내기로 한 루브르와 구겐하임 외에도,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V&A 뮤지엄,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가장 적대적인 미국에서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이 이슬람 문화 색선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2012년 이집트 출신의 현대 예술가 디아 알-아자위(Dia al-Azzawi, 1939~)의 작품 '사브라와 샤틀라 학살(Sabra and Shatila Massacre)'(1982~1983)을 구매해 상설 전시 중이다. 너비가 7.5m의 대작으로, 레바논의 극우 기독교 군대가 사브라와 샤틀라 수용소의 난민을 집단 학살한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었다. 테이트 미술관의 결단은 단지 이집트 출신 현대 예술가의 작품 구매라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선다. 마치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화로 기록되었듯이 이 작품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객을 만날 때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난 종교적 갈등의 역사가 환기될 것이다. 이에 고무된 카타르는 지난 3월 두바이 아트 위크 기간에 맞춰 무라카미

다카시와 데이미언 허스트의 전시회가 열렸던 현대미술관에 프랑스 큐레이터 카트린 다비드의 기획으로 알-아자위의 전시를 개최했다.

아트마켓 플랫폼을 제공하는 두바이

아부다비나 카타르가 미술관을 중심으로 아트마켓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두바이는 아트 페어, 갤러리, 옥션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면서 미술품 거래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트 두바이는 두바이 통치자인 알 막툼 가문과 중동 지역 전역에서 부동산 사업과 각종 투자를 이끌고 있는 아브라즈 그룹(Abraaj Group)의 후원 아래 2007년에 시작했다. 세계 미술 시장이 가장 고조됐던 시기와 맞물린다. 같은 해 설립된 알세르칼 애비뉴(Alserkal Avenue)는 아트 두바이와 함께 중동 미술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알 쿠오즈(Al Quoz) 공업 지역에 남아 있는 39개의 창고를 묶어 만든 이 '갤러리 타운'은 아얌 갤러리(Ayyam Gallery)의 입주를 시작으로 지금은 25개 갤러리와 아티스트의 작업실과 레지던시, 디자인 스튜디오, 카페 등이 들어서 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창고 62개를 추가해 공간도 2배인 25만ft²에 이르게 됐고, 작년에 프랑스의 유명 컬렉터 장 폴 나자 파운데이션이, 올해는 건축 거장 렘 콜하스가 이끄는 OMA가 설계를 맡은 새로운 다목적 공간 콘크리트(Concrete)까지 생겨나며 잇따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 미술 시장의 저변에는 알-아자위의 성공 사례처럼 이슬람 문화권의 현대 미술가를 세계 미술사의 역사에 새기려는 시도가 꿈틀거리고 있다. 1920~1940년대에 태어나 서구의 미술을 처음으로 배우고 접한 모던 예술가들이 첫 번째 타깃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아트 두바이의 모던 세션에 참여한 이집트의 아토크(Arttalks) 갤러리는 이집트 현대미술의 가장 맘두흐 아마르(Mamdouh Ammar, 1928~2012)의 작품을 선보이며 작고한 작가의 재평가에 피했고, 캔버라리 세션에서는 갤러리 르롱(Lelong)이 베이루트 출신의 에텔 아드난(Etel Adnan, 1925~)을, 두바이의 권위 있는 갤러리 더 서드 라인(The Third Line)은 이란 출신의 모니르 샤희루디 파르만파르마인(Monir Shahroudy Farmanfarmaian, 1924~)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한편 일찌감치 두바이에 진출한 경매업체 양대 산맥 크리스티는 매년 아트 위크 시즌에 특별 전시와 경매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명성 높은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SKIRA)와 손잡고 이집트 작가 마흐무드 사이드(Mahmoud Said, 1897~1964) 탄생 1백20주년을 기념하는 카탈로그 레조네(전작 도록)를 새로 발간했다. 2차 시장에서 카탈로그 레조네를 통한 위작의 예방이 중요하고 건전한 신뢰 속에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전략이다. 크리스티가 자리한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는 10여 년 전부터 고급스러운 현대미술 갤러리들이 들어서 커뮤니티 스타일의 알세르칼 애비뉴와는 다른 방식으로 두바이 미술 시장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다. 올해는 크리스티의 경쟁자 소더비도 이곳에 사무실을 열고 중동 공략을 위한 태세를 갖췄다. 2008년 본캠프가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중동 현대미술 경매를 열어 예상가의 3배를 뛰어넘는 약 1천3백만달러(1백46억원)의 성과를 거둔 이후 각 경매사의 현대미술에 대한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슬람 미술품 구매의 36%가 이뤄지는 런던의 경우 매년 4월 크리스티, 소더비, 본캠프 등 세계 3대 경매사가 이슬람 아트 위크를 열고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중동 지역의 모슬렘 부유층이 런던으로 많이 이주한 덕분이다. 현재 런던 시장 역시 쿠웨이트 출신의 모슬렘이고, 런던 최대의 백화점 해리스의 소유주가 카타르 정부이며, 런던 시민 8명 중 한 명은 모슬렘이라는 통계가 있기도 하다.

국제 교류의 장, 샤르자 비엔날레

샤르자는 두바이, 아부다비 등과 더불어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이 지역의 미술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교류를 펼치고 수준 높은 동시대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아트 비엔날레의 개최지로 유명하다. 1993년 중동 최초의 비엔날레

로 시작된 샤르자 비엔날레(Sharjah Biennale)는 그 자신이 큐레이터이기도 한 샤르자의 공주 후르 알-카시미(Hoor Al-Qasimi)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이 지역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비엔날레로 자리 잡았다. 공주가 10대 시절 시작된 샤르자 비엔날레는 그녀가 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여전히 관람객들의 편의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미숙함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나 작품의 수준만큼은 높이 평가받는다. 특히 2013년에 일본의 하세가와 유코, 2015년에는 한국의 주은지 등 중동 문화권 출신이 아닌 큐레이터를 총감독으로 초빙하는 등 국제 미술계의 인지도를 얻는 데도 성공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점차 글로벌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샤르자 북부 해변에 위치한 알 할리아(Al Hamriyah)에 예술가 창작 스튜디오 겸 전시장을 신설했는데, 이로써 작가와 큐레이터의 지적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젝트가 보다 다양하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도 샤르자 재단과의 협업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중동의 예술을 세계에 알리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삼각 편대의 이점 등에 얽고 성장 가도를 달린다

딜로이트 리포트(Deloitte's Digital Islamic Services Report)에 따르면 2011년 7천9백만달러(약 8백80억원) 수준이던 이슬람 미술 시장은 연평균 22%라는 놀라운 성장

세를 보이며 2015년 1억9천만달러(약 2천1백5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유럽순수예술재단(TEFAF) 보고서의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2015년 기준 약 6백38억달러(약 72조원)에 달하는 세계 미술 시장 규모에서 이슬람 아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음은 물론이다(0.2%에서 0.3%). 미술 시장의 성장은 갤러리 전시회, 전문가들의 평론, 경매를 통한 리세일, 그리고 미술관의 소장품에 이르는 다차원적인 측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국제 미술 시장의 관심이 고조됐을 때 서로 비슷비슷한 아트 페어, 비엔날레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소모적이고 삭상한 방식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실례 사례를 많이 목격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부유한 현지 소비자층의 태동으로 문이 열렸지만, 각 도시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도에 힘입어 아직은 작지만 세를 점점 더 불려나가는 중동의 아트마켓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유기적인 성장은 아부다비와 카타르의 미술관이 궁극의 수요처를 맡고, 두바이의 갤러리와 아트 페어, 경매가 유통의 플랫폼을 담당하며, 샤르지는 비엔날레를 통해 새로운 작품의 생산뿐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국제 교류를 통한 담론 형성에도 기여하는 삼각 편대의 힘 덕분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이름 있는 미술관 하나 두고 있지 않은 두바이가 아트 위크 기간에 전 세계의 컬렉터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곧 완공될 세계적인 미술관,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등을 거치며 중동의 아트마켓이 어떻게 더 성장할지 관심이 기울여진다. **글 김형애**(이안아트컨설팅 대표)

1 카타르 도하에 있는 마타프 아랍 현대미술관(Mathaf Arab Museum of Modern Art). Photo by Richard Bryant, Courtesy of 마타프 아랍 현대미술관 2 아부다비에 자리 잡은 마나랏 알 사디야트(Manarat Al Saadiyat) 전시장 풍경. Photo by 권경용 3 무료 전시와 공연이 활발히 열리고 공연도 있어 카타르 국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 카타르 빌리자 내 한양궁장. Courtesy of Katara Village 4 2017 샤르자 비엔날레에 참가한 구동희 작가의 작품. Photo by 권경용 5 747에서 1947에 이르는 이슬람 문화를 살펴본 이슬람 미술관(Museum of Islamic Art)의 내부 컬렉션. Courtesy of MIA 6 매년 3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 '아트 두바이(Art Dubai)'의 디렉터 미르나 아이트(Myrna Ayad)와 행사장을 찾은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하만 빈 무하마드 알 막툼(Sheikh 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 Courtesy of Photo Solutions 7 투자회사 아브라즈(Abraaj) 그룹에서 수여하는 미술상을 받은 라나 베굼(Rana Begum)의 작품이 2017 아트 두바이가 열린 마나랏 주메이(Manarat Jumeirah)의 공간에 선보였다. Courtesy of Photo Solutions



INTERVIEW with **Abdelmonem Alserkal**
 두바이 '문화 예술 특구' 알세르칼 애비뉴의 창시자

Creative force

아랍의 문'으로 불리는 두바이에서 현대미술을 비롯해 디자인,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교류가 이뤄지는 '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있다. 지나다나다 보면 '언제 다시 올래(When Will You Return)?'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새겨진 창고 같은 건물이 눈에 띄는 알세르칼 애비뉴(Alserkal Avenue)가 그곳이다. 10년 전, '두바이라고 안 될 게 뭐가라는' 생각으로 폐공장과 창고로 뒤덮인 공간이던 곳을 '다시 오고' 싶도록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한 주인공을 현지에서 만나봤다.

두바이 알 쿠오즈(Al Quoz) 공업 자구의 입구. 골목 안으로 진입하자 연회색빛 네모난 건물들이 다소 건조한 느낌으로 여기저기 서 있는 혼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언뜻 여기가 어째서 아트 허브라는 건지라는 생각과 함께 물음표가 떠오를법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뭇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각각의 건물은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운 갤러리, 작가 아틀리에, 극장, 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 다분히 문화라는 공통분모를 둔 쓰임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세련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덕에 소위 '아트+디자인' 퍼플만 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이곳은 지금은 알세르칼 애비뉴(Alserkal Avenue)라고 불리는 일종의 '갤러리촌'이지만 원래는 창고, 공장 등이 모여 있던 삭막한 공업 단지였다. 폐공장 등 버려지다시피 한 공간을 철거하는 대신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문화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환골탈태시키는 재생 건축의 성공 사례인 셈이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2007년, 낡은 공단을 '재생'하기로 결단을 내린 주인공은 두바이 출신의 사업가 अब델모넴 알세르칼 (Abdelmonem Alserkal). 알세르칼 애비뉴는 바로 그의 성을 딴 이름이다.

'Why not Dubai?', 한 부호의 각성으로 탄생한 문화 예술 특구

"제 부친도 이슬람 미술이나 캘리그래피를 수집하는 아트 컬렉터였어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현대미술을 접하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두바이라고 안 될 게 뭐야(Why not Dubai)?'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 소유의 공업 단지를 현대미술의 허브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알세르칼 애비뉴에서 직접 만난 अब델모넴 알세르칼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다. 지금은 두바이가 미술과 디자인, 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 지역의 크리에이티브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상황이 좀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척박한 사막을 일궈 사회,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메트로폴리스다. 인공미 돋보이는 화려한 도시 경관 때문인지 일부 아랍 국가들처럼 석유가 철철 넘쳐나는 비옥하기 그 지없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오랜 세월 막대한 부를 누려온 산유국이 아니다. 오히려 19세기만 해도 영국의 보호령에 속해 있었고, 진주조개잡이를 하는 어부와 사막의 유목인이 근근이 연명하던 볼품없는 나라였다. 그러다가 1966년에 처음 석유가 발견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고, 1971년 UAE가 영국의 보호령에서 벗어나면서 두바이는 일종의 경제 수도이자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가 됐다. 하지만 이웃 토후국인 아부다비에 비하면 원유 생산량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그나마 수십 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대적으로는 부유하지 않다. 두바이의 지도자 가문은 석유 없



1



2



3



4

사진 제공 알세르칼 애비뉴

이도 경쟁력 있는 덴마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세계적인 마천루 '부르즈 할리파', 7성급에 준하는 슈퍼 럭셔리 호텔 '부르즈 알 아랍', 인공 섬 '팜 아일랜드' 등 휘황찬란한 건축 자산을 거느리게 된다. 하지만 '창조 도시로서의' 면면을 갖추려면 '소프트 콘텐츠'도 차올라야 하는 법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또 다른 도약을 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면서도 글로벌한 문화 플랫폼 품을 키운다는 알세르칼의 비전 어린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는 행보다.

수익과 동시대 예술 융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다

사실 다분히 상업적인 프로젝트로 출발하기는 했다. अब델모넴 알세르칼도 애초에 '상업적인 문화 지구'(commercial art district)로 기획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단지 사업가로서의 '축만'으로 통 큰 투자를 결심한 건 아니었다. 두바이 출신인 만큼 그에게는 자신의 고향 땅이 문화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다. 때마침 수요도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라는 판단이 섰다. 두바이 최초의 아트 페어인 아트 두바이(Art Dubai)도 바로 2007년에 탄생했다. "뭔가 기운이 쫘뼛거리고 있다고 느껴진 거겠죠. 아트 신이 막 형체를 갖추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처음인 만큼 비약적인 성장세를 타지는 못했다. 게다가 2008년에는 세계적으로 외환 위기가 찾아오면서 두바이 역시 위기의 물결에 휩쓸린 적이 있다. 그래도 차츰 성장해 나갔다. 2008년 두바이에 기반을 둔 아얌 갤러리(Ayyam Gallery, 이번 호에 소개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추상회화 거장 사미아 할라비가 소속된 갤러리이기도 하다)의 입주를 시작으로 그린 아트 갤러리(Green Art Gallery), 카본 12(Carbon 12), 로리 사비비(Lawrie Shabibi) 등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사립 미술관 살사리 프라이빗 뮤지엄(Salsali Private Museum, SPM), 디자인 갤러리 라 갤러리 나쇼날(La Galerie Nationale) 등도 합류했다. 가능성의 윤곽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अब델모넴은 망설이지 않고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2012년 그는 25만ft²(약 2만3,225m²)의 공간을 더 만들어 기존 규모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1천4백만달러(미화 기준, 약 1백57억원)의 투자금을 집행했다. 현지 문화 예술인들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 공연장, 각종 문화 단체 등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



5



6



7

그램도 마련했다. 이 같은 행보에 호응이 따랐다. 뉴욕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레일라 헬러(Leila Heller) 갤러리를 비롯해 1X1 갤러리, 엘마르사(Elmarsa) 갤러리, 서드 라인(Third Line) 갤러리 등이 속속 터를 잡았다. 초정밀 세계 메커니즘을 예술 수준으로 끌어올린 스위스 갤러리 M.B. & F MAD 갤러리도 2016년 초 입주한 알세르칼의 명소다. 이제는 입주를 위한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다.

창조 계급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문화 허브를 향한 한 치원 높은 꿈

보다 큰 차원의, 제3의 효과는 문화 생산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도시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외치는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창조 자본'의 핵심인 '창조 계급(creative class)'이 흡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갤러리는 물론 글로벌 갤러리들이 들어오면서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건축가, 엔지니어 등 다양한 인재가 더 많이 생겨나고 다문화적인 풍토가 씩씩 튀우게 된 건 자연스러운 현

상이었을 것이다. '초대국의 시대는 지나고 바야흐로 '도시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는 두바이로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알세르칼은 일종의 메세나(mecenas) 기능을 하게 된 셈이다. "어떤 유형의 조직이든 문화 예술을 권장한다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두바이는 2020 월드 엑스포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차원에서든 그런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अब델모넴 알세르칼은 한 단계 더 진화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네덜란드 건축 거장 렘 콜하스가 이끄는 OMA에 설계를 맡긴 복합 공간 '콘크리트(Concrete)'를 지은 것이다. '도시 재생'으로 유명한 렘 콜하스가 UAE에서 처음 내놓은 건축물인 콘크리트는 역시 창고 건물을 전시장, 콘서트홀 등 쓰임새가 다양한 현대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재생 건축의 산물이다. "기존의 건물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상력과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는 렘 콜하스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면서 신흥 도시들이 명성 높은 코즈모폴리탄 도시로 성장하려면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필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두바이 아트 시즌인 지난 3월 중순 전격 공개한 콘크리트의 첫 전시로 시리아의 문화 예술을 후원하는 아타시 파운데이션(Atassi Foundation)의 소장전을 선택한 것도 그런 고민의 소산이었던 듯하다. 1924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리아 근현대 예술가들의 작품 60여 점을 소개한 <Syria: Into the Light>. 내전과 난민 문제로 고통받는 시리아에도 위대한 예술혼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전시는 지역성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관점에서도 손색이 없었다.

10년에 걸친 변화를 주도하면서 하나의 작은 브랜드가 된 알세르칼 애비뉴는 이제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수용하고 다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알세르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창조 계급을 포용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우리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흥미로운 곳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다채로운 사고와 아이디어가 융화되어야 하겠죠.'" 아무리 아랍의 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두바이지만 사실 이슬람 문화권은 아직은 많은 이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두렵게 여기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문화적 혼종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알세르칼 애비뉴 같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반갑게 다가오는 이유다. **글 오성연**



8

110년 전인 2007년 두바이의 문화 예술 특구라 불리는 알세르칼 애비뉴를 만든 अब델모넴 알세르칼(Abdelmonem Alserkal). 2 올해 알세르칼 애비뉴에 새로 들어선 다목적 공간 '콘크리트(Concrete)'. अब델모넴 알세르칼은 두바이 전선에 재생 건축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 거장 렘 콜하스가 이끄는 OMA에 이 건축물의 설계를 맡겼다. 3 알세르칼 애비뉴는 갤러리, 카페, 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 생산자의 터전이다. 4 70대 중반의 노장인 렘 콜하스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 콘서트장을 방문한 콘크리트의 첫 전시는 시리아 근현대 미술을 후원해온 아타시 가문의 소장품을 선보인 <Syria: Into the Light>. 5 아트 두바이가 지난 3월, 알세르칼 애비뉴에 입주한 FN 디자인 갤러리에서 전시된 조슈아 왓트(Joshua Watt)의 'Totem(Listen)'. 6 알세르칼 애비뉴 내 엘마르사(Elmarsa) 갤러리에서 류, 미 출신의 작가 칼리드 벤 슬리만(Khalid Ben Slimane)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7 <Syria: Into the Light>전에서 선보인 미셸 쿠르세(Michel Kurchat) 작가의 작품. 'Badawiyei', oil on wood, 53x38cm. 8 अब델모넴은 한 치원 높은 글로벌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레지던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내면의 열정을 뽐어내는 황금빛 미술

2008년, 두바이의 아트 페어 아트 두바이(Art Dubai)에 출품한 작품 9점이 모두 판매된 것을 시작으로 3년 연속 아트 두바이 완판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은 채은미 작가. 오랜만에 아트 두바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작가를 청담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올해 아트 두바이 참가는 몇 년의 공백기를 뒤로하고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미세하게 볼록한 금색 사각 큐브가 격자무늬 백열도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다. 주변 공기와 감상자의 심리를 빚으로 표현하며 공간을 장악하는 작품은 아트 두바이 완판 작가로 알려진 채은미 작가의 황금 큐브 작품이다. 이례에 비해 국내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채은미 작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두바이에서 해마다 열리는 아트 페어 아트 두바이(Art Dubai)에 참가해 3년 연속으로 출품작을 전부 판매했다. 이후 한동안 조용히 작업과 해외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3월에 열린 아트 두바이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채은미 작가의 시그니처는 황금이다. 아트 두바이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것은 아랍권에서 좋아할 만한 금이라는 재료 덕도 크다는 점은 작가 스스로도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작품 일부분에 넣어 재료의 단편적 효과를 누린 게 아니다. 화면 전체에 금을 대담하게 사용해 재료의 물질적 특성은 물론 내재적인 의미에 주목한다. 이제는 작가와 페어 낼 수 없는 '짝꿍'이 되어버린 황금은 일찍이 일본 유학 시절에 탄생했다.

"도쿄예술대학 연구생 시절에 우연히 누군가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다미 방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작업하는 걸 봤어요. 그 경건함에 이끌려 천천히 다가오니 바닥에서 황금색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잊히지 않았어요. 이후로 계속 금색만 눈에 띄었고,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결심했어요." 채은미 작가는 2000년대 초반에 '금박 회화'를 발표했다. 당시 작품은 캔버스에 얇은 금박을 입힌 평면 회화였다. 휴지처럼 얇은 금박을 다루는 건 쉽지 않았다.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작가는 접착제를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옷칠에 눈을 뜨게 됐다. "옷칠은 계속 습 수고 있고 1천 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아요. 금과 같은 옷칠의 영원성에 끌렸어요. 옷칠을 하다 보니 가장 궁

합이 좋은 자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금과 옷칠, 자재 등을 다루는 작업이 너무 전통적인 기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고민하다 보니 작품이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작품은 점차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변화했다. 사출성형해 도금한 큐브의 순수한 황금색과 자재가 격자무늬로 엮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었다. 화면의 상하좌우 또는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자재가 황금 큐브에 반사돼 바뀌는 모습은 작품이 살아 있는 듯한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날씨, 낮과 밤, 조명, 감상자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도 작품이 계속 유기적으로 변한다. 작품의 이러한 형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작가에게 내재된 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점차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는 오랜 고민과 연구, 작업에 대한 열정,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다. "미술 이론 공부를 하면서 서양 중심의 미술 사조가 언젠가 아시아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양적인 색채를 쫓아가기 싫었고, 다른 재료와 색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해하지 않고 천천히 한 발짝씩 나아가는 연구자적 자세는 그녀의 작품과 매우 닮았다. 작품과 대면하는 오랜 시간은 작가에게 생활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냈을 것이다. "큐브는 일일이 손으로 붙여야 해요. 조금만 틀어지면 전체가 달라져서 0.1mm 오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몇 달 정도 걸리죠." 금박 큐브는 디지털 영상과 만나 한 단계 더 발전했다. 2015년에 선보인 'Cube Table TV'는 그녀의 작품이 평면 회화에서 설치미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채은미 작가는 지난 3월 중순에 열린 아트 두바이에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다. 아트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겪어본 그녀는 아랍권 미술 시장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1 채은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아트 두바이 전시회 모습

지하철은 없어도 미술관은 있는 나라, 카타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을 2012년 3천억원에 구입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의 소유자를 보유한 나라로 널리 이름을 떨친 카타르. 이후로도 2015년 고갱의 '언제 결혼할 거니'를 3천6백억원에,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2천억원에 구입한 이가 각각 카타르의 뮤지엄과 카타르 투자청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하철 같은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이곳에서 유명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빙해 미술관을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의 오랜 토착국 중 하나로 영국 식민지 시대가 종식된 1971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귀속되지 않은 독립국가로 출범했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여전히 왕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의 면적(약 11만km²)에 인구가 2백20만 명인 작은 나라다. 하지만 원유 외에도 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에 달하는 등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코르니쉬 해변을 따라 뉴욕의 마천루 못지않은 현대 도시의 위용을 뽐내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이 작은 왕국의 번영을 뽐내는 결정체다. 바로 이 코르니쉬 해변의 남단에 세계에서 꼭 봐야 할 7대 미술관으로 선정된 이슬람 미술관(Museum of Islamic Art)이 있다. 2008년 완공된 이곳은 이슬람 국가에서 오롯이 이슬람 문화에 헌정한 최초의 미술관이다. 격동의 근대사를 겪은 데다 서방국가에 대척되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 탓에 2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이슬람 문화를 집대성한 미술관을 세우게 된 것이다. 건축물은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아이밍페이가 맡아 이슬람 사원을 모티브로 설계했고, 내부는 루브르 박물관의 실내 건축으로 잘 알려진 장 미셸 빌모트가 담당했다. 2011년에는 미술관을 따라 펼쳐진 산책로의 끝에 높이 24m에 달하는 리치드 세리의 거대한 메탈 조각 '7'을 설치했다. 이슬람 모스크의 종탑을 상징하는 이 조각은 이슬람 문화에서 과학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담은 숫자 7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미술관, 국가 발전의 한 축이 되다

이 변화의 뒤에는 카타르의 현대화를 이끄는 뮤지엄 본부(Qatar Museum Authority)가 있다. 카타르의 문화부가 2008년에 독립 부서로 출범하고, 그 이전에는 정보부 산

하에 있거나 교육부와 묶여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뮤지엄만을 위한 독립 후원 기관을 그보다 앞선 2005년에 이미 창설했다는 점은 대단히 전폭적인 후원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조칙을 이끄는 리더가 현 카타르 국왕의 여동생 알-미야사(Her Excoellency Sheikha Al Mayassa bint Hamad bin Khalifa Al-Thani) 공주다. 여성의 활동이 제한적인 여타 아랍 국가에 비해 적극적으로 세계 문화 외교에 나서고 있는 그녀의 활동은 아버지인 히드라 전 국왕 시절의 왕비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알-미스네드 왕비가 카타르의 힐러리로 불릴 정도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전 국왕 부부의 국가 발전 정책이 코벌의 과과대를 비롯한 해외의 유수의 명문 대학을 유치하는 등 교육에 치중했다면, 알-미야사 공주는 근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명성 높은 해외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유치하며 문화적 네트워크를 확실히 쌓아나가는 행보도 이슬람 문화를 서구의 유수 문명과 같은 차원에 올려놓기 위한 포석이다. 2012년부터 2013년에 연이어 개최한 무라카미 다카시와 타이미언 허스트의 전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민에게 세계 문화 예술의 흐름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도시명인지 국가명인지 혼동될 정도로 미약한 카타르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2015년부터는 '뉴욕타임스'와 공동으로 '내일을 위한 예술'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고, 소방서를 개조한 예술가 레지던시는 파리 시테 레지던시와 손잡고 2018년부터 카타르의 예술가들을 파리에 파견하고 있다. 사막의 모래꽃을 모티브로 한 장 누벨의 건축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 이로써 2008년에 개관한 이슬람 미술관의 확장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오일머니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사들이다

베르사유, 런던 등 자국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유명 작가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국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사들이는 국가 정책이 카타르 국민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다행히도 국민들은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의적이다. 히드라 전 국왕이 천연자원으로 획득한 부를 소수의 왕족에게 한정 짓지 않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여느 민주국가 못지않은 복지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한몫을 했다. 한낮이면 열기가 50℃에 이르러 정류장까지 걸어나갈 수조차 없는 뜨거운 사막의 나라. 그래서 아직 카타르에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간간히 다닐 뿐이다.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야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 누벨, 렘 콜하스, 이소자키 아라타 등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루이즈 부르주아, 수보드 굽타 등 세계적인 예술가의 조각이 도시 곳곳에 놓여 있으며, 수준 높은 무료 전시와 공연이 상시로 열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은 결국 그 혜택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천연자원에 의존했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국민들의 계몽을 위한 교육 개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기 위해 문화를 선택한 나라 카타르. 성공을 이룩한 뒤에 문화를 확립하기보다 문화를 통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더 쉽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과, 교육 수준이 높아진 다음에는 궁극의 지향점이 문화적 욕구로 귀결될 것임을 미리 간파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정학적 열세에 있기 때문일까. 눈에 보이는 효율이 아니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카타르의 문화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글 김경애(이안아트컨설팅 대표)

2 카타르의 미술관 모습

3 카타르의 미술관 모습

1 청담동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만난 채은미 작가. 2 'Reflection-Change of the Angle1'(2012), acrylic panel on injection model, farbfilm & gold leaf, 140cmx80cmx6cm. 3 'Reflection Mapping - Water, Light, Fire, Cloud, Wind'(2015), 55in TV, glass on injection model, 430cmx86cmx11cm (each 134,2x86) Photo by 김동호. 4 지난 3월 열린 아트 두바이에서 채은미 작가 작품을 보고 있는 두바이 왕세자(세이드) 왕단 빈 무하메드 알 막툼) 일행.



"전반적으로 작품이 세련되어지고 컨템퍼러리 아트가 많아진 거 같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컬렉터 대부분이 왕족이었는데, 지금은 두바이에 사업하러 온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은 상차 같아요. 앞으로 정말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작가 역시 7년 만의 참가인 데도 기대보다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다.

"올해는 자기보다 좀 더 현대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였어요. 두바이는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액수가 커요. 제 작품은 서너 개를 시리즈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의치 않고 한번에 전부 구입하는 고객이 많아요. 당장의 판매에 급급하기보다 앞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면 언젠가 이뤄지리라 생각해요." 활동 재개를 다려온 그녀는 국내 시장보다는 좀 더 큰 세계 무대에 진출하려는 열정과 포부를 지니고 있다. 과거 자신의 예술적 바탕을 뒀던 일본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작가는 2014년부터 '위로의 잔'을 만들고 있다. "기독교 미술 단체 아트 미션과 연말 전시를 준비하면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밥 먹자고 말하는 것처럼 차 한잔 대접해 위로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위로의 잔'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고는 힘들어하는 지인들에게 하나둘 선물했고, 이후 틈틈이 잔을 만들고 있어요." 작품으로 누군가 위로하고 싶다는 작가의 모습에서 잠시 작업에서 손을 떼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 느껴졌다. 겹겹이 쌓아온 세월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지 그녀의 자기작을 기대해 본다. 글 김민서

INTERVIEW with **Samia Halaby**

beautiful Resistance

역사는 굴곡지더라도 아티스트의 예술적 영혼까지 잠식할 순 없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 아랍 아트 신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 추상화가로 단단히 뿌리를 내린 사미아 할라비(Samia Halaby)와의 만남.

‘어른’을 만날 땐 긴장보다 설렘이 먼저인다. 한 분야의 거목(巨木)이 지내온 물리적인 삶의 시간과 그 사이에 켜켜이 쌓였을 경험과 지혜 때문이다. 올해로 만 80세를 맞이한 팔레스타인 출신의 추상화가 사미아 할라비(Samia Halaby)와의 만남은 그래서 더 특별했다. 그녀의 인생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참담한 역사의 시작과 함께한 유년기, 미국 이민자 신분으로 치열하게 버텨낸 청소년기, 현대 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단지 출신만으로 비주류 취급을 받으면서도 곳곳에 추상화가로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온 50여 년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쏟아지던 4월의 어느 날, 사미아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란 톨립 한 디발을 들고 뉴욕 트라이베카에 위치한 그녀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전형적인 뉴욕의 오래된 건물 2층으로 빼그덕거리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사미아가 먼저 나와 반긴다. 작업실 겸 보금자리로 쓰이는 기다란 직사각형 공간은 주인의 겸박하고 담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듯 50년 작업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거실 한 가운데, 침실 벽면, 작업실 구석 등 곳곳에 무심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의 눈이 구(球), 실린더, 나선, 원형 등의 사물을 바라보는 과정을 빛과 그림자 효과 등을 통해 정교하게 탐구한 초기작 시리즈,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을 채집해둔 듯한 컬러 시리즈, 페인팅을 하나하나 오려서 모빌처럼 콜라주한 설치 작품 시리즈 등 눈길 닿는 곳마다 그녀의 예술혼이 담담하게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녀가 이곳에 등지를 뜬 것이 1976년. 당시 많은 아티스트들이 숙명처럼 여긴 뉴욕에 그녀 역시 설렘을 안고 입성한 지 40년이 넘었다. 그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고 생각하니 책장 모서리, 바닥의 페인트칠마저도 다시 보게 된다. “집주인이랑 오래 알고 지내서 렌트비도 적정하게 맞춰줬어요. 몇 년 전 그이도 저세상으로 가버렸지만.” 뉴욕의 악명 높은 집세부터 떠올린 필자에게 살짝 당황스러울만한 이야기를 참 나직하게도 건넨다. 그리고 얼마 전 그녀의 개인전이 열린 두바이에서 사 왔다는 로즈힙 차를 끓이며 예술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인생담을 들려주었다.



2



사진: 양영호, Ayyam Gallery



6



1, 6 뉴욕 트라이베카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만난 팔레스타인 출신의 추상화가 사미아 할라비(Samia Halaby). 2 'Interwoven Through Depth'(2016), acrylic on canvas, 207x420cm. 3 'Colors for Orange'(2015), acrylic on linen canvas, 178x178cm. 4 'Light and Space'(2015), 180x180cm. 5 'Pyramids'(2011), acrylic on canvas, 217x434cm. 7 수십 년 전에 하던 '구체' 페인팅에 다시 도전하려고 요즘 컴퓨터 앞에 자주 있는다는 사미아 할라비. 8 팔레스타인인민군들이 시인한 카프르 카심 대학살 사건을 다룬 드로잉 시리즈 'Implosion, Killing the Women, Ninth Wave of Killing on the Western Road, The Kafir Casem Massacre of 1956'(2012), charcoal on paper. 9, 10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을 채집해 화폭에 옮긴 듯한 '할라비'표 작품들. 그리고 그런 수작을 탄생시키는 다양한 붓. 2, 3, 4, 5, 8 작품 사진: 사미아 할라비가 소속된 두바이의 아얌(Ayyam) 갤러리(www.ayyamgallery.com) 제공

영원한 추방, 영원한 그리움

사미아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전인 1936년, 성공한 도매 수입상의 딸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지중해 서안에 위치한 텔아비브의 고대 항구도시 '야프(Jaffa)'에서 보냈는데 '팔레스타인의 신부'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어린 사미아는 친구들과 형제자매를 위해 나름의 '콜라주'를 선물하길 좋아하던 소녀였다. “제가 우리 가족 중 첫 아티스트이고, 언니 오빠는 다 과학자예요. 그래서 저도 언니들 따라서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해볼까도 생각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걸 좋아하니 미술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겠느냐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죠.” 단란하고 평범하던 일상은 그녀가 12세가 되던 1948년, 이스라엘 시오니스트(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 세력)들에게 강제 추방당하면서 산산조각이 난다. 잠시 머물던 레바논 베이루트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학생들의 시위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상처처럼 더 깊이 남게 되기도.

1951년, 할라비 가족은 결국 미국 이민을 결정하고 오하이오 주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당시 보통의 미국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고, 일부 선동가들은 유대인은 선택받은 고결한 집단, 팔레스타인인은 테러리스트라고 몰아갔기 때문이다. 사미아의 오빠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쫓겨날 일도 있었다. “막 아주해왔을 당시, 한 지역 신문이 'People from Holy Land'란 주제로 우리 가족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신문이 나오고 가족과

둘러앉아 같이 읽어보았는데, 피부 색깔부터 자세히 언급하더군요. 그런 식의 인종차별은 처음이었어요.” 1960년대 초 커리어 노선에 뛰어들던 사미아는 인디애나대, 하와이대 등 미국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화가이자 교직자로서 경력을 쌓아나갔는데,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그 과정도 그리 만만치 않았다. “첫 정규직 이민자 여교수로 예일대 미대에 재직했을 때도 몇몇 시오니스트 교수들의 반대로 약속했던 영구 교수직 재계약이 무산되는 등 부당한 대우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시련은 그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자각하게 해주었고,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추상화, 현실을 아름답게 재해석하는 창

그런데 왜 ‘추상화’라는 장르를 택하게 됐을까? “어머니가 미술 공부를 권유했을 때만 해도 상업 미술로 돈 많이 벌어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추상화가가는 적어도 정부 관료나 CEO를 위한 그림은 안 그려도 되잖아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대학 시절 큐비즘과 러시아 구성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그녀는 추상이 ‘리얼리티’, 즉 보통의 자연과 사실을 사진보다 흥미롭게 묘사할 수 있는 진화된 장르여서 매료됐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상은 실재가 없는 상상 속 이야기’만 다룬다고 오해한다면, 한때 사미아는 가을날 거리를 수놓는 나뭇잎에 반해 1천여 개의 각기 다른 잎을 책안에 책갈피처럼 모아두고 일백과 표면을 살피며 영감을 얻은 적도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한 원초적 끌림의 근원은 어디서 온 것일까. 미국으로 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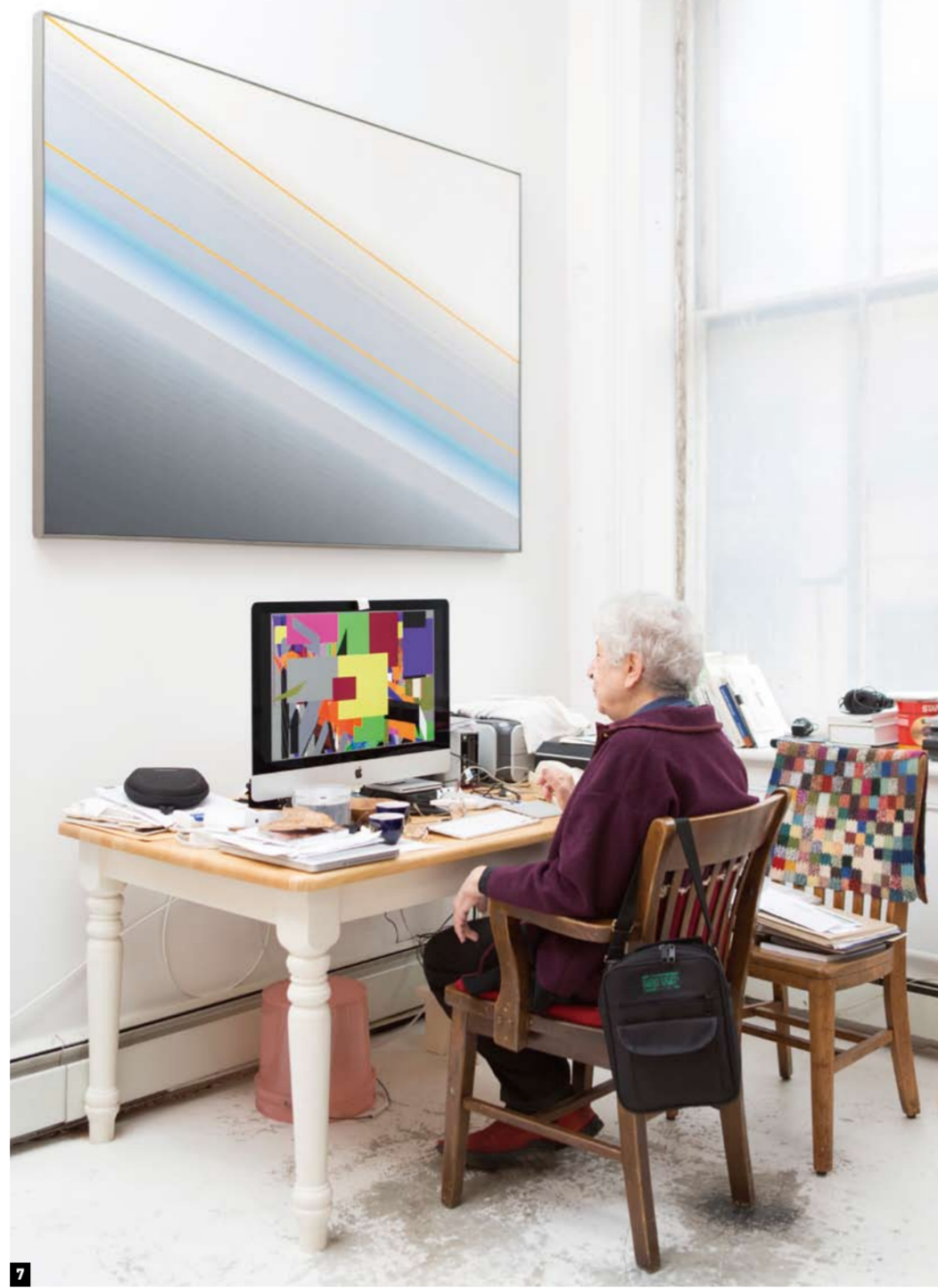
한 이후, 1964년에 처음으로 이집트, 터키, 시리아 등 아랍 문화권을 다시 방문하며 자신에게 내재된 자연애(自然愛)의 뿌리, 그리고 아랍식 추상미술에 대한 끌림을 확인했다. “서양미술사를 공부할 땐 단순히 ‘우리가 최고, 우리가 제일 아름답다’고만 하고 실용적인 면만 강조해서 지루했어요. 아랍 여행 때, 특히 바위 사원을 돌아볼 땐 아랍 미술 특유의 기하학적 정교함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깃든 해석을 보고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죠.”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주요 요소는 ‘컬러다. 신시네티대(Univ. of Cincinnati)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부 시절, 왜 일몰은 빨강인지, 왜 하늘은 파란지, 가을이면 나무 색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등 색에 대해 한층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사미아의 작품 세계를 대변하는 밝은 색깔은 1980년대, 캔버스의 대체제로 ‘AMIAGA’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키네틱 페인팅을 하던 시기에 떠올리게 됐다. “오일 페인팅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빨리 그리기가 힘든데, 컴퓨터로는 스피드 효과도 가능하고, 예일대 제작자 재능 있는 뮤지션인 케빈이랑 즉흥연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 더 이상 그리기가 싫고 어렵더군요. 어느 날, 컴퓨터가 만들 수 있는 색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색을 직접 그려보자라는 결심이 섰죠.”

새로운 창작욕을 품게 된 사미아는 자신의 집 근처인 차이나타운에서 받은 영감을 녹여낸 포토 몽타주 시리즈, 뉴욕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컬러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 시리즈 등으로 슬럼프를 이겨낸다.

단단한 올리브나무처럼

뉴욕은 그녀에게 이렇듯 풍부한 예술적 영감을 안겨주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액티비스트로서의 싸움 틈을 수 있게 도와준 투쟁의 도시이기도 하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제3세계에는 냉정하게 거리를 뒀던 뉴욕의 아트 신(지금도 사미아의 달리는 중동에 있다). 그 속에서도 사미아는 구겐하임 미술관(뉴욕, 아부다비), 워싱턴 국립 미술관, 대영 박물관 등에서 그녀의 작품을 소장할 정도로 세계적인 작가로 성



7



8



9



10

장해나갔지만, 자신의 커리어와는 별도로 사회학, 정치적 영역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아랍 커뮤니티와 이민자라는 같은 한계가 있는 다른 나라 아티스트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정치 운동가가 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작품과 정치의 관계다. 사미아는 딱 잘라 그 둘은 별개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내게 팔레스타인이란 주제는 중요해요. 지금도 그곳에선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상징인 올리브나무 시리즈, 카프르 카심 대학살(Kafr Qasim Massacre) 사건을 다룬 드로잉 시리즈 모두 참담한 역사와 현실을 알리기 위해 그린 작품이다. 특히 1956년 이스라엘 군대가 49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살한 비극을 담은 카프르 카심 드로잉 시리즈는 사미아가 이례적으로 그린 비(非)추상 작품으로 이 끔찍한 사건의 생존자,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을 만큼 마음을 쏟았다. 요즘 사미아는 여전히 제3 세계에 높은 벽을 치는 뉴욕을 제외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 크고 작은 전시를 치르고 있다. 전시가 마무리되어도 한숨 돌리기 무섭게 2017년 버전 키네틱 페인팅을 다시 시작해볼 요량으로 독수리 타법을 구사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독화하는 날이 대부분. 화수분 같은 뜨거운 에너지를 품은 작가에겐 웬지 꿈이 있을 것 같았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평생의 바람이에요.” 녹록하지 않은 세월을 아름다운 예술혼으로 성실히 일궈낸 그녀의 첫인상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겹쳐 보인 건 과장된 착각이 아니었다. 글 정승혜

또 다른 모더니티를 주목하다

우리는 그간 서구 중심으로만 근현대미술을 바라본 것은 아닐까? 근대성은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동의 모더니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 전시가 더욱 흥미롭고, 의미 깊게 다가오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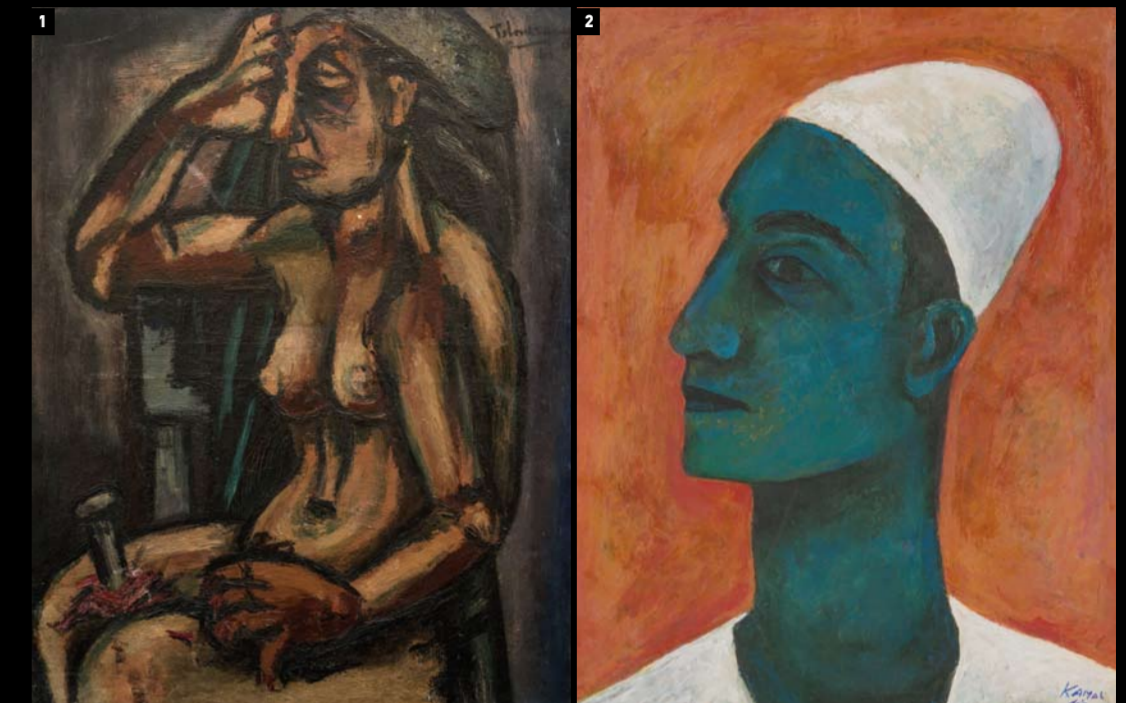
중부 유럽과 미국, 러시아는 20세기의 각종 문화유산과 연구 기관이 밀집된 덕분에 근대의 수도로 불렸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비서구 지역의 근현대미술을 조명하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고, 근대성이 사실은 얼마나 다양했는지, 또 우리의 기존 관점이 얼마나 모순적일 수 있는지 증명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집트 초현실주의가 있다. 20세기 중반 이집트 미술가들은 유럽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그리고 남미의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와 동시대에 활동하며 교류했다. 그러나 이집트 초현실주의는 유럽, 남미 지역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개념을 추구했다. 그 시작점은 유학 중 프랑스 시인이자 초현실주의 주장자인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과 교류하다가 귀국해 예술가들과 모임을 만든 조르주 헤네인(Georges Henein)이라는 인물이었다.

퇴폐 미술이여, 영원하라!

시인이자 문학 비평가였던 헤네인은 1938년 퇴폐 미술이여, 영원하라라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이집트 지식인 31명이 이에 서명했다. 이들은 당시 퇴폐 미술(degenerate art)이라는 단어로 모더니스트들의 상상력을 차단했던 나치와 피시즘 세력에 반발해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감정을 제한하려는 권위에 저항하고자 했다. 이 선언문을 계기로 1939년에 이집트 예술가, 문학가 등을 주축으로 한 예술과 자유 그룹(Art and Liberty Group)이 발족했다. 유럽 초현실주의가 세계대전 이후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를 비판하며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했다면, 이집트 초현실주의는 문화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교육해 예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처음에는 헤네인이 시를 쓰면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교류를 해나간 예술과 자유 그룹은 1938년부터 1945년까지(자유 미술전이라는 전시를 개최하고 시, 예세이 등을 때내는 등 짧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당시의 흥미로운 작품으로 카멜 엘-텔레미니(Kamel El-Telmisany)의 무제(無題)인 누드, 1941)와 인지 아틀라툰(Inji Aftaloun)의 단사외이 학살(1950년대를 꼽을 수 있다. 입이 있는 누드는 다리 못 이 박힌 여인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여성의 인권과 매춘을 할 수 밖에 없는 혹독한 현실을 보여주고, 단사외이 학살은 영국군이 단사외이 마을 주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역사적 사건을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중동을 알고 싶다면 이집트를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라

1946년, 예술과 자유 그룹의 활동이 뜸해지자 젊은 작가로 구성된 현대미술 그룹(The Contemporary Art Group)이 주목받았다. 현대미술 그룹은 예술과 자유 그룹의 모토를 계승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집트적인 예술



1 카멜 엘-텔레미니, '무제(입이 있는 누드, 1941), 캔버스에 유채, 73x58cm, 카이로 이집트 근대미술관 소장. 2 카말 유시프, '귀족(1940년대), 나무판에 유채, 47x8cm, 사르 자미술재단 소장. 3 압둘 하디 알-자제르, '현정(1962), 나무에 유채, 18x22cm, 카이로 이집트 근대미술관 소장. 4 무함마드 라이드 사이드, '미르사 사만에서의 꿈(1973), 나무에 유채, 160x120cm, 카이로 이집트 근대미술관 소장. 5 압둘하디 알파레르, '시인(1951), 나무에 유채, 47.5x67.5cm, 카이로 이집트 근대미술관 소장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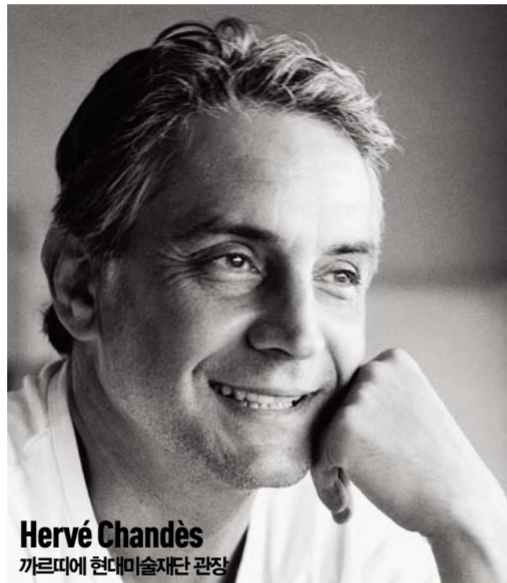
5

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주로 신화와 전설, 이집트의 일상, 사회의 집단 무의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대표 작가 압둘 하디 알-자제르(Abdel Hadi Al-Gazzar)는 1948년에 빈 식가를 발아래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시인 함창단'으로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구급된 미술가였다. 그가 구급된 이후 그림이 사라졌고, 이번 전시(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에 소개한 작품은 1951년에 다시 그린 것이다. 이후 압둘 하디 알-자제르는 수에즈 운하를 배경으로 한 '현정(1962)과 니세르 정권의 반이집트주의를 표명한 '평화'(1965)를 발표했는데, 기존 작품과 완전히 다른 화풍이라 눈길을 끈다. 강렬한 색감과 구도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린다. 이집트 혁명 이후 초현실주의는 군부의 억압을 받았고, 1965년 이후에는 추상표현주의에 밀려 사라졌다. 하지만 21세기 이집트는 중동의 할리우드로 불릴 정도로 영상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이 지역 문화 중심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집트 역사와 시대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 작가 와엘 샤크(Wael Shawky)와 영화감독 유스리 나스랄라(Yousry Nasrallah)의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집트의 철학이 이집트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초현실주의에서 비롯됐음은 의심할 나위 없다. 이집트는 세계 4대 고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역사적으로도 중동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다. 새로운 문명과 자식이 중동으로 유입될 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의 접점인 이집트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중동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집트를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은 중동의 근현대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듯하다. 2016년 이집트 카이로의 팔리스 오브 아트(Palais des Arts)에서 처음 선보인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새로운 기획을 통해 해외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전시는 7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글 이소영

a monumental Exhibition in Seoul

전시는 물리적인 체험을 중심에 두는 '공간형 콘텐츠다. 무엇을 상상하던 가상현실로 펼쳐낼 수 있는 사이버 시대에도 오히려 눈으로 직접 보고 감흥을 얻는 체험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물입의 에너지가 전혀 아깝지 않은 콘텐츠가 흔하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올여름에는 확실한 희소식이 하나 있다. 현대미술 생태계에서 빼어난 독창성을 인정받는 한 재단이 선사하는 수준 높은 대규모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서울에 찾아왔다는 낭보다. 컨템퍼러리 아트트의 진정한 수호자로 통하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서울시립미술관과 손잡고 펼치는 <하이라이트(Highlights)>전은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또 되도록 한 번의 방문에 그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은 '머스츠시(must-see)'다.

2011년 가을, 파리로 여행을 갔는데 며칠 차이로 놓쳐 못내 아쉬웠던 현대 미술 전시가 있었다. (수학, 아름다운 그곳(Mathematics: A Beautiful Elsewhere))이라는 전시였다. 정말로 떠나가서 떠올리는 그 수학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었는데, 수학과 과학자, 현대미술 분야의 걸출한 작가들이 한 데 뭉쳐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방식과 개념을 체험 가능한 형태의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빚어냈다고 했다. 언뜻 어려울까? 싶지만 다분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흥미로운 전시를 언 채는 파리 14구 라스파유(Raspail) 대로에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마침 온 종계 전시를 본 필자의 화가 친구를 비롯해 상당수 아티스트들은 파리에 가면 되도록 이 미술관을 들른다. 현대미술에 조예가 있는 유럽인 중에는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파리지역의 기념비라고 부를 만큼 독창적이고, 때로는 혁신적이기까지 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 누벨이 미술관 설계를 맡기도 했는데, 전원이 미술관 뒀 이렇다면 외관으로도 유명하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천고 8m의 시원한 전시 공간, 그리고 곳곳을 예술품으로 수놓은 정원으로 직접 통하는 구조 등으로 수려하면서도 효율적인 건축 미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ervé Chandès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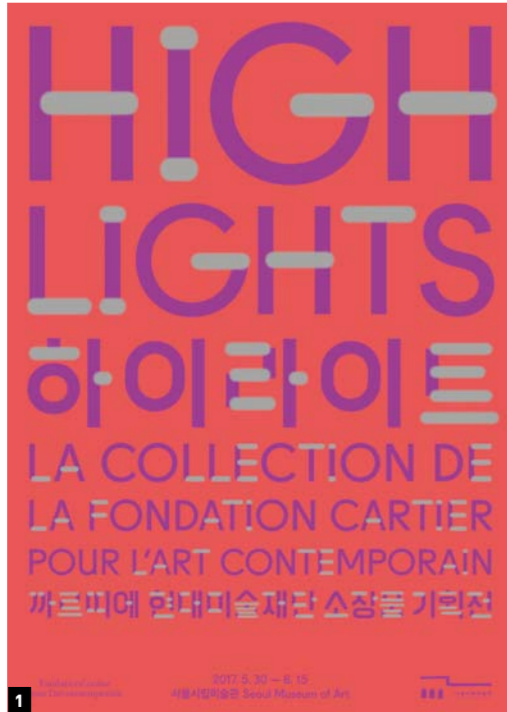
파리에서 날아온 소장전, 보석 같은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6년 전의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소장품이 멀리 서울로 날아오를 운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도 단순한 원정이 아니다. 차별하고 진지한 고민 끝에 엄선한 1백여 점의 소장품과 더불어 파킹찬스(PARKING CHANC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박찬욱·박찬경 감독 듀오,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인 선우훈이 특별 기획한 작품도 선보인다. 그리고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파리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개인전을 연 이력의 소유자인 이불 작가는 당시의 전시 작품인 '천지(Heaven and Earth, 2007)를 비롯해 개인 수집가의 소장품인 '스텐바우 No.16(Stembau No.16, 2008)를 공개한다. 파리에서 열린 '수학전' 전시 작품(비디오도 두 점 포함)도 있다. 33년 역사를 지닌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소장품 규모는 전세계 3백여 명 작가의 작품 1천5백 점 정도다. 그런데 이 재단은 단순히 작품을 사들이는 컬렉터가 아니다. 상대성 원리가 지 휘움을 든 1994년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재단이 실도 있는 기획 회의를 거쳐 제작을 의뢰한 작품(commissioned artworks)을 소장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전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스케일의 작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협업적 후원 방식 덕분에 진정한 창조적 출가물이 갖는 결과물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중 1백 점을 골랐으니 서울 기획전을 'highlights'라고 명명한 것이 충분히 수긍된다.

개인전이나 기획전이 다른 나라로 원정을 떠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듯 33년의 역사가 담긴 컬렉션은 다양하게 소개하고 현지 작가들과 작업까지 결 들인 대규모 전시는 저희도 처음입니다. " 전시 준비차 한국을 찾은 에르베상 데스(Hervé Chandès) 까르띠에 현대미술관 관장은 "그저 컨테이너로 우리가 고른 작품을 가져와서 '이거다' 하고 내놓는 방식은 재미없지 않냐"면서 서울시립미술관(SEMA)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기획전을 강조했다. 실제로 3개 층에 걸친 전시 공간을 제공한 파트너이자 공동 기획자이기도 한 SEMA와 1년 넘게 협의를 했고, 전시 디자인(Scenography)도 한국 디자이너인 이세영 논스텐다드 스튜디오가 맡았다.

끊임없는 발견의 정신,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창의적 파트너로 불리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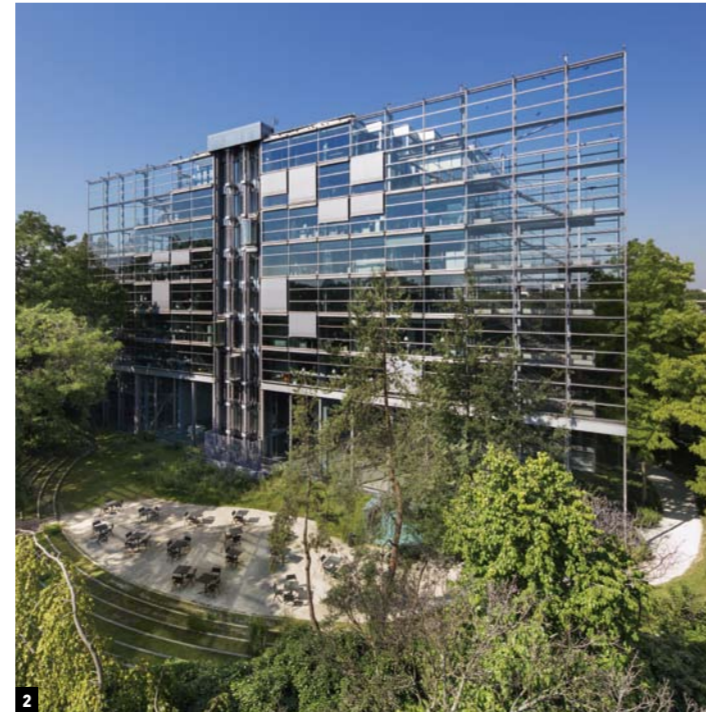
그렇다면 재단과 SEMA가 상향을 기울여 선정한 컬렉션 작가들의 면면은 어떨까? 론 뮤익(Ron Mueck), 사라 지(Sarah Sze), 쉐리 삼바(Chéri Samba), 모리야마 다이도(Moriyama Daido), 차이 구아쑤양(Chai Guo-Qiang), 레이몽 드파르동(Raymond Depardon),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언뜻 낯익은 이름도 보이지만 어지간한 현대미술 애호가나 아니려면 생소한 작가들의 작품이 꽤 된다.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나 카타노 타케시(Kitano Takeshi), 패티 스미스(Patti Smith) 같은 경우에는 각각 영화감독과 배우, 뮤지션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국내 팬들에게 현대미술을 넘나드는 아티스트로는 소개된 적이 별로 없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되도록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전시를 하지 않은 아티스트 위주로 가자는 것, 그리고 한해 미술의 다양한 영역을 보여주자고 싶다는 것, 이렇게요. 왜 하하면 발견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2007년에 이불이라는 걸출한 작가를 파리에 큰 전시로 소개해 유람인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수학'이라는 키워드에서 눈치를 챘지만 실제로 재단의 전시 이력을 보면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사진, 영상, 춤, 음악, 퍼포먼스 등 영역도 다채롭지만 사마니즘, 부두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탐구 정신을 북돋웠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가, 과학자, 아마존 인디언 같은 그룹이 만나고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신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서로 다른 가치와 개성이 어우러지면서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오게 된 것이다.

"가득 말씀드리지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끝없이 새로운 걸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을 추구하는 이런 전시 역시 관람객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들에게도, 그리고 재단 자체에도 발견의 기회가 됩니다. 한국 대중, 기자, 아티스트를 만나 배우고 소통하면 저마다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박찬욱·박찬경 감독, 선우훈 작가와 협업하기로 한 것은 우수한 한국 영화와 디지털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좋은 전시는 서로에게 발견의 기회가 된다는 어쩌면 당연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건 이 재단이 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까르띠에에는 브랜드가 100%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만 간섭은 일절 없다. 또 정부나 유관 기관의 도움도 받지 않게 기획에서 전시 운영까지 온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창의적인 작가들과 진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세상에서 수준 높은 새로운을 선사하면서 말이다. 아마도 이런 창조적 보람은 20년 넘게 이 직장을 굳이 떠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주된 배경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한국과의 만남은 어떤 자극과 계기를 만들어줄까 궁금해진다. 상대성 원리의 말대로 이제 '스토리는 막 시작됐으니까,' 그 출발점이 될 <하이라이트>전전은 8월 15일까지 무료로 개최된다.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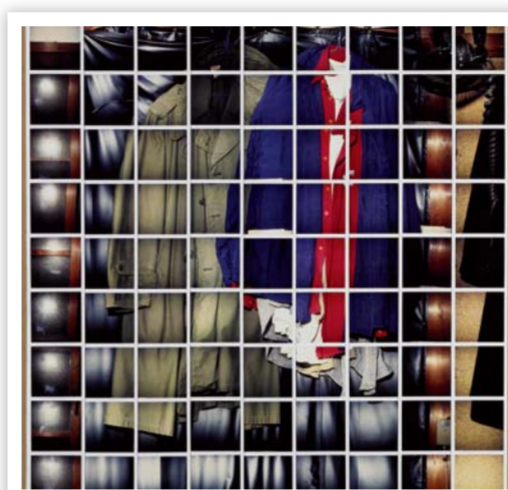
알레산드로 멘디니
'유리 병사(2002), 베너 유리, 까르띠에 황색 금박, 49x28cm
©알레산드로 멘디니, ©패트릭 그리즈



쉐리 삼바
'나는 색을 사랑한다(2010), 캔버스에 아크릴, 골라티, 205x305cm
©쉐리 삼바



콜라우디아 인두저르
'정해성, 와티타 우' 연작(1976), 첼리틴 삼바 프린트 17점 ©콜라우디아 인두저르



모리야마 다이도
'폴리모이드 폴리모이드(1997), 26개 패널에 부착된 3천2백62장의 컬러 폴리모이드 사진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 ©모리야마 다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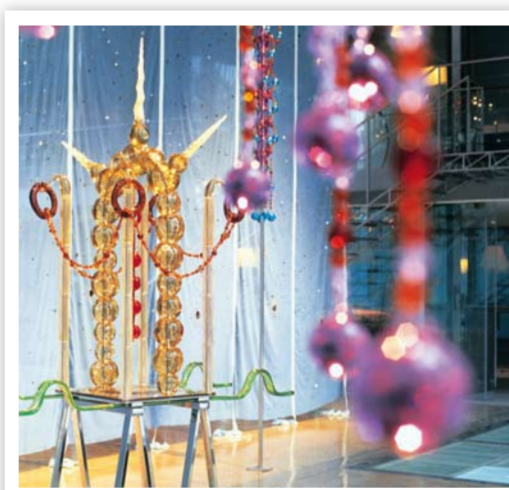
데이비드 린치
'비언트 작업 #1, #2(1970~2006), 드로잉 2면x9점, 종이에 혼합 매체 ©데이비드 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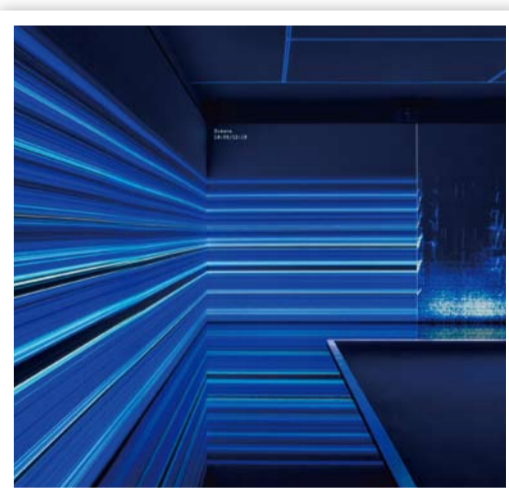
딜러 스코피디오 렌프로
'지구(2008~2015), 물감용 6채널 비디오와 사운드 설치(아이디어: 폴 비렐리오) ©딜러 스코피디오 등, 사진 ©릭 보글리



홀리야 이스트레스
'도자 조각(2013), 에-페를 칠한 도자기 ©홀리야 이스트레스, 사진 ©영도 모병



장-미셸 오토니엘
'유니콘(2003), 불어서 만든 유리, 금속, 194x70x50cm
©장-미셸 오토니엘, 사진 ©패트릭 그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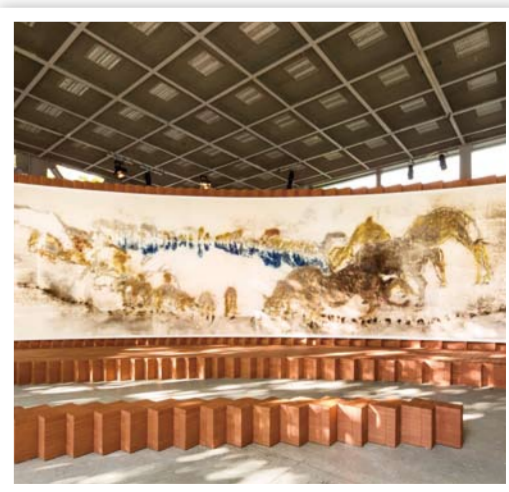
베니 크라우스 & 윌비에미
'위대한 동물 오케스트라(2016), 비디오와 사운드 설치, 84분, 필름: 레이몽 드파르동 ©베니 크라우스, OIVA, 사진 ©릭 보글리



레이몽 드파르동
'프랑스(2004~2010), C-프린트 20점, 각 160x200cm
©레이몽 드파르동/매그넘 사진, 파리



론 뮤익
'침대에서(2005), 혼합 매체, 162x650x395cm
©론 뮤익, 사진 ©패트릭 그리즈



차이 구아쑤양
'화이트 린(2016), 종이 화판, 400x1,800cm, (쑤양 동물 오케스트라) 전시 디자인 작품,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2017) ©차이 구아쑤양, 사진 ©릭 보글리, 차이 스튜디오 제공

masters of artistic Collaboration

당대 최고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컬래버레이션의 달인으로 불리곤 하는 루이 비통이 이번에는 제프 쿤스와 손을 잡았다. 소위 '잘나가는' 동시대 작가들 중에서도 작품가가 압도적으로 비쌀뿐더러 늘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현대미술계의 '브랜드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것도 '키치의 제왕'이라는 명성답게 이름만 들어도 입이 딱 벌어지는 고전 거장들의 작품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가방에 녹여냈으니, 과연 예술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브랜드와 아티스트가 손을 잡는 협업 프로젝트는 이제 좀 지겨울 정도로 흔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아티스트와 어떤 브랜드의 만남인지가 시선 집중도를 정하게 마련이다. 동시대 미술을 활용한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장인이란 할 수 있는 루이 비통이 최근 절로 눈길을 잡아끄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빈치(Da Vinci), 티치아노(Titian), 루벤스(Rubens), 프라고나르(Fragonard), 반 고흐(Van Gogh) 등 서양미술사를 대표하는 가장 5명의 회화 작품을 브랜드의 가방 클래식 라인 전반에 녹인 마스터즈 컬렉션(Masters Collection)을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인류의 미술사를 통틀어 경쟁한 대가들의 명작을 가방과 액세서리의 세계로 모셔왔으니 패션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이들조차도 일단 시선을 즐겁다. 더구나 루이 비통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무라카미 다카시, 구사미 야요이, 리처드 프린스 등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브랜드 이미지도 격상시키고 작가들의 개성도 드러내는 '상생'의 협업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역사의 흐름을 결정지은 위대한 '올드 마스터'를 끌어오는 건 아무리 루이 비통이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시선을 날을 수도 있는 꽤나 용감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만만치 않은 협업의 주인공이 제프 쿤스(Jeff Koons)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주요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에 작품이 팔리는 비싼 작가 제프 쿤스는 기성 예술의 연속주의를 조롱하는 '키치(kitsch)'의 제왕으로 불리는 인물이 아닌가. 만 여덟 살 때부터 옛 거장들의 그림을 모사해 '제프티 쿤스'라고 서명한 후 부친의 가게 전열장에 전시하곤 했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감상적이고 값싼 복제품, 저렴한 일상용품이라 여겨지는 오브제나 이미지를 과감히 차용해 키치를 예술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영리한 예술가, 포르노 배우 출신의 이탈리아 국회의원과 결혼해 1년 만의 이혼 등으로 일거수일부족이 화제가 되는 현대미술계 최고의 '브랜드' 작가. 호오(好惡)를 떠나 대가들의 명작을 다루는 아트 컬래버레이션에 제프 쿤스만큼 잘 어울리는 작가를 떠올리기 힘든 이유다.

제프 쿤스는 수년 전부터 명화에서 영감을 얻은 연작 '게이징 볼(Gazing Ball)'을 선보여온 작가이기도 하다. 다빈치, 고흐, 루벤스 등의 명작을 확대한 뒤 그 위에 거울처럼 반사되는 푸른색 공을 놓아둠으로써 마치 관객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 시리즈다. 이번에 루이 비통과 협업해 완성한 마스터즈 컬렉션은 바로 이 시리즈를 토대로 삼고 있다. 다만 푸른색 공 대신 거장의 이름을 메탈



1



2

소재로 표현했으며, 루이 비통 특유의 모노그램을 최소화함으로써 명화 본연의 분위기를 나뉠 살렸다. 각각의 제품에는 거장의 이름뿐 아니라 작가의 이니셜도 새겨져 있다. 루이 비통의 L과 V를 결합 패턴처럼 작가의 이니셜 J와 K를 조화시켜 가방 양 귀퉁이에 배치했는데, 지금껏 상징적인 모노그램 패턴의 변화를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브랜드인 만큼 은근한 묘미를 선사하는 변주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백에는 40년 동안 작가의 모티프가 돼온 토끼 모양의 액세서리 태그가 걸려 있으며, 안에는 작품 원작자의 전기와 초상화가 담긴 책자가 들어 있다.

이번 마스터즈 컬렉션은 제프 쿤스와 루이 비통이 함께 진행하는 다채로운 창조적 협업의 신호탄이라고 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궁금해진다. 둘의 첫 번째 공함은 매장만이 아니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는 8월 27일까지 열리는 <비행하라, 향해하라, 여행하라-루이 비통(Volez, Voguez, Voyagez-Louis Vuitton)> 전시에서도 직접 볼 수 있다.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작업했다는 협업의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감상하는 이의 자유일 것이다.

사진 제공 루이 비통

언제나 논란과 인기를 함께 불러일으키는 제프 쿤스. 말끔한 처림으로 이름 꽤서니스타로도 유명한 그는 명품 브랜드와의 창조적 협업을 어떻게 대했을까? <스타일 조선일보>에서는 뉴욕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이번 컬렉션을 위한 작업에 임하고 있는 제프 쿤스와의 대화(Q&A) 내용을 6월호의 아트+컬처(Art+Culture) 특별 기획에 단독으로 소개한다.

Q1 루이 비통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선보인 첫 번째 백 시리즈는 당신의 최근 작품인 '게이징 볼' 시리즈의 그림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이 왜 루이 비통과의 협업 프로젝트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A** '게이징 볼' 시리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다.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자신의 외부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때, 진정한 탁월함을 깃출 수 있고 더욱 폭넓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가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다른 누군가의 작품 세계를 높이 사며 존중하는 아티스트들을 선택했다. 그들은 "이 작가는 나보다 더 흥미로운 것 같다", "이 작가가 역시 뛰어난 누군가를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아티스트들을 높이 평가했고, 자기 자신의 외부에서 자신보다 더욱 위대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시명의 한 형태이며,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뭔가를 초월해 탁월해지고 싶다면, 우리 외부에 있는 가장 단순한 혹은 가장 복잡한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한계는 더욱 확장된다.

Q2 이 컬렉션에 등장한 5개의 작품은 어떻게 선택한 것인가? **A** 5개의 이미지로 협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 바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강렬하면서도 감동적인 루벤스의 호랑이 사냥(Tiger Hunt)을 골랐다. 다빈치의 '모나리자(Mona Lisa)'도 그중 하나다. 프라고나르의 '소년과 강아지(Girl with Dog)', 티치아노의 '마르스, 비너스와 큐피드(Mars, Venus and Cupid)', 반 고흐의 '참나무가 있는 밀밭(Wheatfield with Cypressess)'도 있다. 우리는 풍경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림, 또 비록 회화만이 아니라 시상을 다루는 작품 등 이 프로젝트의 깊이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기 위해 고심했고, 현대적 관점에서 본 예술사를 폭넓게 다뤘다. 아티스트들 사이에도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 루벤스의 호랑이 사냥이 레오나르도의 '앙기아리 전투(Battle of Anghian)'에 기반을 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긴밀한 연결성을 내 DNA의 일부로 생각하고 싶다.

Q3 당신의 그림을 컬렉션으로 옮겨 오는 과정에서 게이징 볼은 사라졌다. 가장 디테일 중 하나로 게이징 볼을 넣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A** 인간의 몸과 가방이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게이징 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거리를 걸어 다닐 때 이미 그들 간의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토끼를 넣었는데, 내가 함께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나만의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Q4 왜 아티스트의 이름을 가방 위에 카드라고 반짝이는 글자로 넣을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A** 아티스트 이름을 반사되는 형태로 넣은 것은 게이징 볼 시리즈에서 게이징 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가방과 연결된 사람에게 대한 반영도 존재한다. 당신이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존중하고 높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반사, 반영(reflectivity)이라고 할 수 있다.

Q5 당신은 과거에 당신 작품이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지 원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마스터즈 컬렉션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나? **A** 루이 비통과 작업을 하면서 정말 출가했던 점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대중, 가방 주인, 그리고 가방을 바라보는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인 정신, 소재, 디테일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저 완벽한 스티치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다. 나는 디테일을 위한 디테일이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는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가방을



다빈치 '모나리자'



루벤스 '호랑이 사냥'



반 고흐 '참나무가 있는 밀밭'

소유하거나 보는 이가 비단 그걸 만든 아티스트뿐 아니라 폭넓은 감정적 연결 고리를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반 고흐 백을 소유했다면 그 연결 고리는 반 고흐와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반 고흐는 고갱(Gauguin)을 비롯해 네덜란드 거장들, 그리고 루벤스를 사랑했다. 결국, 모든 게 연결되는 셈이다.

Q6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가방을 소유한 사람을 아티스트, 그들이 높이 산 다른 아티스트들, 그리고 당신 자신이 포함된 연결 고리로 데려오는 것인가? 즉, 모든 이들이 이 네트워크에 포함하는 것인가? **A** 젊은 시절부터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동경이다. 나는 그림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피카소(Picasso), 달리(Dali), 파비아(Picabia)와 함께 아방가르드를 선도하는 한 부분이 되고 싶었다. 그 후 예술사를 일면 알수록 더 큰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나는 그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일종의 가족 의식을 즐기고 있다. 주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과 사람들도 모두 말이다.

Q7 당신은 제프 쿤스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토끼를 넣었다고 언급했다. 토끼가 아티스트로서의 당신에 대해 어떤 것을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는지? **A** 관대함(generosity)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플레이보이의 토끼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상징이기도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가장 아이코닉한 이미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끼를 사용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제프 쿤스 백이군. 제프가 이 가방을 만들었군'이라고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띄는 뭔가를 원했다. 하지만 자세히 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단지 루이 비통 모노그램의 상징성과 어우러지는 무언가를 원했다.

Q8 당신은 이 컬렉션을 예술로 보거나, 아니면 패션으로 보거나? **A** 굳이 분류한다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인생과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돌아보게 해준다. 예술은 결코 오브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더 다양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나는 루이 비통의 제품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루이 비통은 제품,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재료와 장인 정신을 통해 이를 전달해왔다. 나 역시 내 예술 작품 속에서 아이디어와 장인 정신을 발휘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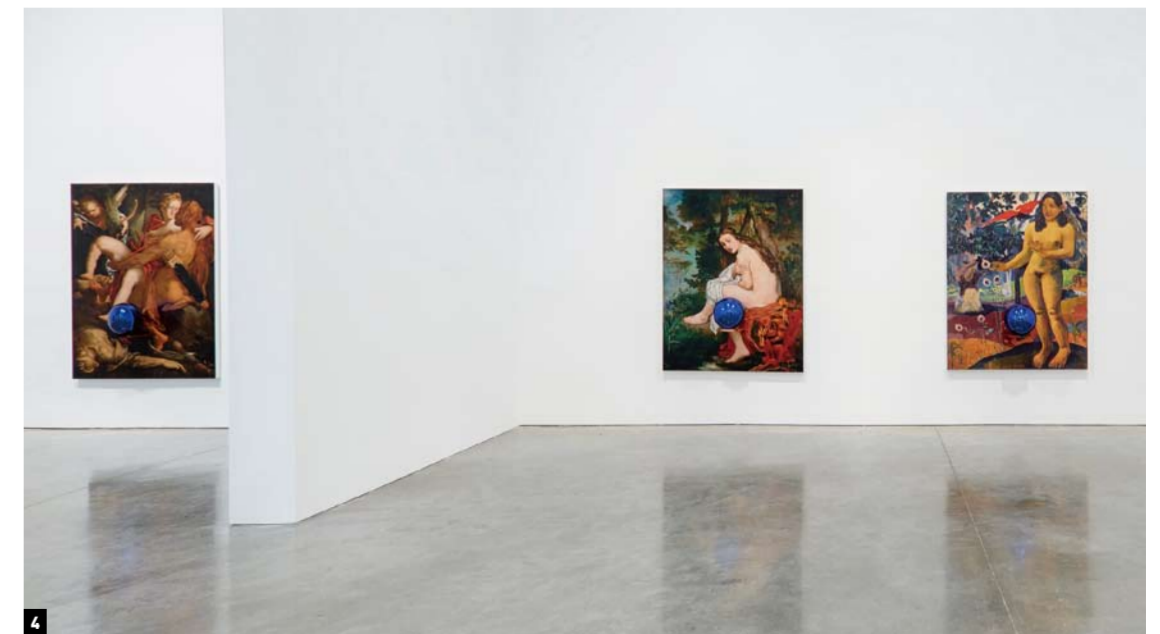
5



6



3



4

1 명화를 배경으로 푸른 게이징 볼을 들고 있는 제프 쿤스. 2 키치의 제왕이라 불리는 제프 쿤스는 수년 전부터 명화에서 영감을 얻은 연작 '게이징 볼(Gazing Ball)'을 선보여왔다. 2 제프 쿤스의 게이징 볼 시리즈 중 피렌체시의 헤라클레스(Hercules) 상을 활용한 작품. 3 제프 쿤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Balloon Dog'. 4 제프 쿤스는 조각에서 시작해 회화로 방향을 넓혀 조토의 유도의 입맞춤, 마체의 율령미가 같은 고전 회화의 복제품 시리즈를 만들고 작품 중에도 게이징 볼을 삽입한 작품을 내놓았다. 5, 6 루이 비통 x 제프 쿤스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방 라인 '마스터즈 컬렉션'은 게이징 볼 시리즈를 토대로 한다. 물론 구몬(ball) 대신 작품의 원작자인 거장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씨 글자를 붙였다.

